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죄로 어두워가는 지구촌이 문부림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 못 받는 죽음의 계곡으로 달려가는 도망자를 위하여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소망은 하루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통해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헌신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심으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94호 2012년 7월 2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개막...5천여 명 한데 모여

제7차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가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라는 주제로 23일 시카고 윗튼대학 빌리 그레함 센터에서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

첫날 오전부터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등록과 함께 방 배정을 받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1천2백 명의 선교사, 5백 명의 선교사 자녀를 비롯해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들이 모이는 대회로 진행되며 특히 KWMC 사상 처음으로 함께한 GKYM 차세대 선교대회까지 함께 열려 만남의 감격, 사랑의 교제, 비전의 융합, 기도의 연합, 사명의 재부흥, 전인치유, 영적회복, 성령의 재충만, 정보와 전략의 상호교류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역량의 촉진, 동원, 번식을 도모하는 역사적인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선교단체 및 신학교 등의 부스설치로 각 단체별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저녁6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기수로 한 만국기 입장곡과 주강사 및 공동대회장 입장곡으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고석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공동대회장 김민우 목사의 개회선언, 명예대회장 차현희 목사의 선교사 환영사, KWMF 대표회장 최광규 목사의 선교사 답사로 이어졌다. 이어 공동대회장 이승중 목사가 차세대 및 MK 환영사를 통해 차세대들과 MK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했으며 이에 대한 답례사는 WMK대표 강은혜 교수와 GKYM사무총장 이동일 선교사가 했다. 이어 이상진 장로와 고유진 전도사가 개회기도를, 남가주



5,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권사성가단(지휘 박성훈)이 찬양을 했으며 존 파이퍼 목사(Desiring God Ministry)가 축사를 전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러한 큰 축복 뒤에는 그 축복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한국교회에 큰 축복을 내려 주셨으며 그 축복을 따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론 엘리스 목사(빌리그레함센터 소장)는 ‘성공적 선교를 위한 필수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설교를 통해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내력이다. 사역은 마라톤과 같다. 여기모인 자들이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길 바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명예대회장 방지일 목사(제1호 MK선교사), 조동진 목사(조동진선교학연구소장), 강승삼 목사

(KWMA회장)이 축사, 시카고 헨시바 워싱턴팀의 축하 특송으로 이어졌으며 최복규 목사(KWMA공동회장)의 축도로 개막식을 마쳤다. 이어 진행된 첫날 저녁 선교대회에는 최복규 목사의 사회와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 KWMC부회장 조진모 목사가 기도, 정순영 캄보디아 선교사, 오선택 키르키즈스탄 선교사, 그리고 이승일 필리핀 선교사가 선교보고를 했으며, GMS이사장 하귀목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시카고목사부부합창단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특송을, KWMC부회장 송인규 목사가 봉헌기도, 윌덕근 목사의 성경봉독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첫날 강사로 나선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담임)가 ‘한민족 선교를 위한 여호와 이레’(창 22:11-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창세기 3장 불순종

의 역사가 22장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사건으로 인해 순종의 역사로 바뀌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의 공급만을 받는 것이 아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마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합심기도 인도를 했으며, 최경선 여사(메트로폴리탄 성약가)가 특송을, 고세진 목사(서울 명성교회) 축도로 마쳤다.

한편 GKYM차세대 선교대회의 첫날 설교는 존 파이퍼 목사가 맡아 차세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선포했다. (박준호 기자)

미국사회 “어두운 밤” 인기!

미 언론, 콜로라도 극장총격사건으로 총기규제 논쟁점화 보도

미국사회에서 또 다른 무차별 총격사건이 벌어졌다. 자정이 넘는 시간 극장 안에서 영화 ‘배트맨, 더 다크 나이트’(Batman, the Dark Night Rise) 개봉 일에 스크린 상에서의 총격 장면에 맞춰 총격을 가하는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 기독교진영에서는 콜로라도극장 총격을 두고, “미국 사회가 정말로 어두운 밤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이다. 결국 “암흑의 밤”이 결국 기세를 떨치며 용솨음쳤고 현재 미국은 지금 엄청난 쇼크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총격사건이라면 아골이 날만큼 겪어 어느 정도 굳은살이 박힌 미국인들이지만, 이번 콜로라도극장 난사 뉴스에는 어안이 병병한 표정이다. 13년 전 콜롬비아인 교고에서 두 명의 시니어들에 의해 자행된 무차별 총격 사건 이후로 13명이 숨진 후, 또 다시 미국 사회를 공황 수준으로까지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먼저 미언론의 집중보도를 소개하고 ‘카리스마’ 매거진을 통해 미국사회가 이처럼 철축에 가까운 밤에 잠기게 된 이유가 바로, 종교와 도덕보다는 순간적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현상을 질타하고 있는 기고문(A Dark Night Indeed: Trying to Make Sense Out of Another Senseless Act of Violence)의 결론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지난 20일, 총기 난사는 ‘센추리 오로라 16 극장’에서 이날 0시38분에 시작됐다. 이날은 배트맨 시리즈 최신작인 ‘다크 나이트 라이즈’ 개봉 첫날이었다. 증인들에 따르면 영화 상영 중에 제임스 홈즈가 최루탄 같은 연막탄을 터뜨린 후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라이플총과 엽총, 2개의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홈즈는 체포될 때 저항하지 않았다고 경찰들은 말했다. 홈즈는 자신의 차에 폭발물이 있고 자신의 아파트에 부비트랩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수색에서 자동차에서는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집에서 부비 트랩이 발견돼 경

찰들이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총기난사 사건은 콜로라도에선 1999년 4월 콜롬비아인 총기난사 이후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며, 미국에선 2009년 11월 텍사스 포트워드에서 13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잡한 입장을 잠시 잊기 위해 안식처로 찾는 영화 극장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충격의 도가니가 더욱 깊다. 배트맨 시리즈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상영되던 센추리 극장 체인은 미전역에 퍼져 있다.

(3면으로 계속)



2면 도덕적 사회적 보수... 타 교단 후보도 지지



7면 성경과 찬송음악() 문경원 목사



14면 해피 라이프 석은옥(고 강영우 박사 부인)



16면 인터뷰 나학수 목사(광주겨자씨교회 담임)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한몸에 받는 장로의 본질 회복 프로젝트

Lecturer 강사소개



최홍준 목사 호신교회 원로목사 국제목양사역원 원장
홍민기 목사 호신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교수 연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호수원교회 담임목사
고현권 목사 일리안배달한인교회 부목사 교회사전공
김명섭 목사 호신교회 부목사 국제목양사역원 총괄

Information 등록안내

강사 | 최홍준 목사 | 홍민기 목사 | 조진모 교수(동부) | 고현권 목사(서부) | 김명섭 목사
등록대상 | 목사, 장로 (장로로 피택된 직분자, 침례교회의 경우 인수집사, 권사 포함)
등록방법 | 인터넷등록 (www.pastoralministry21.com)
등록기한 | 1차 _ 6월 - 7월 31일 까지 \$120
2차 _ 8월 1일 - 8월 15일 까지 \$140
3차 _ 8월 16일 - 9월 까지 \$160
모집인원 | 120명(선착순 마감)
문의 | 미국 동부 Jina Yang (201-767-7728) 서부 최윤정강사 (949-751-8507)
한국 호신교회 국제목양사역원 김명섭 목사 (+82-01-4045-6725)



13차 9.4-6(화~목 저녁만) 美 뉴저지

장소 동부 필그림교회 (담임 양춘길 목사 시무)
주소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Tel 201-843-2222

14차 9.10-12(월~수 저녁만) 美 로스앤젤레스

장소 서부 세리투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시무)
주소 11841 E. 178 th Street Artesia, CA 90701
Tel 562-860-5451

* 1~12차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참석소감문

- 여러 복잡한 사역에 치어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본질에 단순하면서 핵심을 치는 그런 컨퍼런스라 생각됩니다. -김한요 목사 (美 세리투스장로교회)
- 장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장로님과 목사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강성규 장로 (광주 성지교회)
-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순미 장로 (일산 거룩한빛광성교회)
- 장로님들과의 갈등 중 왜 갈등과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알았고 목양사역을 통해 교회 사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광식 목사 (계주중신교회)
-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양장로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 저의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김정우 목사 (서울 동산교회)
- 이런 컨퍼런스가 13년 전에 있었더라면 저희 교회 이름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용기 장로 (필리핀 마닐라한인연합교회)



시론

나부터 시작



양준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종종 불만과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정부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서로 서로를 향하여. 참 지도자가 없다고, 정부가 썩었다고, 말세라고, 심지어는 망할 세상이라고 개탄합니다. 그러나 잘못 되 어지는 일들 모두가 내 책임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요, 아무개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번들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끼니때가 지난 지 오래되어 모두가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떴어 나오시니 떴어 나오면 명이 훨씬 넘는 무리들이 주린 배를 채우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기이한 기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 어린 소년이 있어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의 배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함을 느꼈기에 가까이 자기의 것을 내밀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순진하게 예수님께 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나부터 앞장서 섬기고,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 주위부터 밝고 깨끗하게 가꾸는 노력에서 기적과 같은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큰일은 부담되어 못하고 작은 일은 눈에 차지 않아 안한다면 우리는 곧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큰일을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며 힘을 모으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행하며, 내가 맡은 역할부터 책임 있게 감당할 때에 참 변화와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의 생각에 "훗날 어른이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많이 드리며 봉사하겠다"고 했다면 혼자 도시락을 먹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5:16). 주어진 기회를 최선의 것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던 그 소년은 비록 지극히 적은 것이었으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일을 했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는 이런 변화의 불씨를 가져다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 소리, 불평과 비난의 소리는 이미 필요 이상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책임을 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오늘도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내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묵묵히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가정과 동네, 교회와 사회에 밝고 아름다운 변화를 창조해 나가는 기쁨과 보람을 만끽해 봅시다.

도덕적 사회적 보수...타 교단 후보도 지지

카리스마, 오순절 교단 신앙인들의 정치적 약진 보도(하)

"기독교 우익" 진영은 1990년대 이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미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미국 보수 기독교계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소위 보수 기독교인들은 자신과 다른 신앙이나 타 교파를 배척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보는 종파주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교파적인 기독교 사회운동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을 구분 짓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보수 기독교계의 정치운동은 상당히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내 침례교 목사로서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자 미국 정치계의 거물인 고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은 보수신앙과 보수정치를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오순절 교단계열 신학 매거진인 '카리스마(Charisma)'는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있는 동 교단 관련 정치인들을 소개하면서, 미국 정치 역학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고 있다(The Rising Tide of Influence: How Pentecostalism is gradually changing the dynamics of American politics).

주류교단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오순절 관련 교회들만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남미나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 교단 관련 리더십들의 정치권 약진은 그만큼 미국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2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오순절 교인으로서 로버트슨 목사는 자신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순절 교인들은 교단이 다른 크리스천들을 존중하기를 했지만 지지하지는 않았다.

는 기쁨을 토하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오순절 교단은 사라 페인 전 알래스카 주지사의 선전에 한 몫을 했다. 당시 존 매케인 후보가 공화당 부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자,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그녀

이나 인습에 의한 예배 형식보다는 열정과 역동성이 넘치는 예배 형식을 선호한다. 그리고 여성이나 히스패닉 그리고 흑인들과 같은 소수자들을 지원한다. 따라서 많은 카리스마틱 교회들이 여성 안수를 허용해

책 경우에서만 보수주의적 공화당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종교 우익' 진영을 이끈 보수주의적 리더들 즉 제임스 달슨, 제리 팔웰, 팀 라헤이와 같은 비오순절교회 신앙인들이 80-90년대 정치 현상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나 '흑인→오바마 지지'

'히스패닉→이민정책은 민주당' 예외

그 이유는 주류교단에 비해서 신앙의 강조하는 바가 달라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 당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견디다보니 다른 교회나 교단의 크리스천들과는 친교 형성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순절 교단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친교를 형성하게 되면 오순절 교인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바로 미네소타 하원의원 미셸 베크만이나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가 오순절 교단의 지원을 받은 분명한 사례이다. 이들은 공화당 대선 예비주자로 베크만은 루터교인, 페리는 감리교인이었지만 오순절 교인들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오순절 교인들과도 교제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며 다시 말해서 친구가 됐기 때문이다. 베크만은 카리스마틱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렐로버츠 대학 졸업생으로 로버트슨이 24년 전 아이오와 예비 선거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

가 알래스카에 있는 하나님의성회 교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한층 고무됐을 정도였고, 그녀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릭 페리 후보의 선전에도 카리스마틱 교인들의 도움은 상당했다. 공화당 예비후보 간의 초반 경선 당시, 그와 함께 실시한 공식 기도 행사(The Response)를 결성시켰다. 3만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모인 가운데, 페리 후보가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는 순서에서는 분위기가 정점으로 솟구쳤다. 이 모임에도 많은 카리스마틱 교단 리더십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베크만이나 페리 후보는 주류 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교인들을 대우시켰다. 바로 성경에 입각한 공약이나 정치적 원리가 오순절 교인들을 끌어 당겼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인 오순절 설교가들과 같은 권위를 인정받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오순절 교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카리스마틱 교인들은 보통 전통

목사직을 임명하고 교회 리더십에 포진시킨다. 히스패닉 교회의 성장 역시 오순절이나 카리스마틱 교단이라는 분명한 옷을 입고 있고, 미국 교회 오순절 운동에서 흑인 교회들의 역할은 1900년대 초반부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오순절 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다. 특히 도덕이나 사회적 쟁점들에서 그러하다. 그 결과 이들은 공화당원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동일화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 오순절 교인은 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예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흑인 오순절 교단(the Church of God in Christ) 중에서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민주당원으로 서 비록 동성결혼과 낙태 권리를 반대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히스패닉 카리스마틱 교인들 역시 공화당원으로서 백인 복음주의 진영의 공화당원들과 함께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나 이민 정

에서 복음주의적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치권에 입성하거나 약진해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모두 오순절이나 카리스마틱 교인들이다. 이들 중 주요 리더들을 소개하면,

△사무엘 로드리게스(S Rodriguez): 미국에서 히스패닉의 소리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그는 복음주의 카리스마틱 진영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성회에서 안수를 받고 카리스마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는 1천6백만이나 되는 중생한 히스패닉 크리스천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비숍 해리 잭슨(Bishop Harry Jackson): 워싱턴DC 호프크리스천 교회 담임으로 그는 수 십년 동안 정치권과 호흡을 같이 해왔다. 특히 공중 정책 분야에서 신앙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N.Y. Office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 수시 입학이 가능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플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오바마 롬니 모두 '총기규제'엔 침묵

미 언론, 콜로라도 극장총격사건으로 총기규제 논쟁점화 보도

(1면에서 계속)

온라인과 DVD를 통해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급증했지만 영화관은 여전히 미국인 대다수가 가장 흔하게 찾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이전의 총격 사건들은 대부분 학교와 직장 등 특정한 신분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가 살인의 목적이 되었다. 실제로 사상자들은 인종과 나이, 직업과 계층에서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

구태여 엮는다면 바로 20일 밤 '다크 나이트 라이즈' 영화를 보러 오로라 시내 센추리극장에 갔다는 점뿐이다. 한 순간 아무 죄도 없이 죽어야 할 이유가 이것이라면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도대체 쇼핑몰, 오페라 홀, 대형 서점, 마켓 등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단 말인가.' 미국인들이 이번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의 저변에는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다.

또한 다른 총격과는 바로 범인 제임스 홉스가 평범하다 못해 착한 남자였다는 사실에서 강하게 밀려온다. 그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연방장학금을 받으며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신경과학 전공 학생이었다. 하지만 졸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그는 이번 학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난 6월 박사과정 탈퇴 수속을 밟는 중이었다. 이 시기부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표는 모든 캠페인을 주말 동안 중지하고, 각각 짧게 연설하기도 했으며,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TV 광고를 콜로라도 주 내에서 방영 중지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총기 단속법 개정제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총기'라는 단어조차 연설 중에 언급하지 않았다. 미디어 관계자들과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와 롬니 모두 총기단속 강화를 원하지만 유권자 확보를 위해 언급을 피할 것이며, 단속법 개정도 기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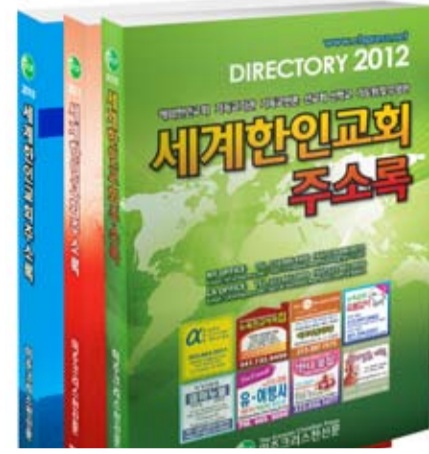
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총기 문제는 수많은 '표'가 걸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후보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한다.

사건이 발생한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날카롭게 맞서던 두 후보는 "어려울 때 우리는 미국 국민으로서 하나가 되어 한다"며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사 고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발간준비

리스트링 작업 마감 9월말, 광고 10월초 마감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3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트링 작업에 들어갔다.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되어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선교단

체 및 신학교 리스트링도 포함된다.

또한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체들의 광고도 게재된다.

이번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트링 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체, 신학교들의 리스트링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종교와 도덕보다 순간 쾌락만 위해 달려가고 있는 현상 질타 정치인은 반드시 보상과 처벌이 있다는 종교 신념 가져야

터 그는 약 2개월 동안 폭발물에 사용될 재료들과 총기류, 6천개의 탄약 등을 구입했다고. 홉스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경찰 취조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는 전과도 없고 그저 과속 운전 티켓을 한 번 받은 게 전부인 의대 박사과정 우등생까지도 극장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일 수 있다는 현실에 미국인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 여름 총기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은 뉴욕의 경우 배트맨 영화를 상영하는 뉴욕시 내 40여개 극장에 경찰을 배치하고 있으며, 미국 내 가장 큰 극장 체인 중 하나인 AMC 역시 사건 후 영화 상에 나오는 의상이나 가짜 무기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시켰다. 23일 현재까지 유사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미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기규제 필요성과 할리우드 영화의 폭력성이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마치 카메라 가게에 최신 제품들이 진열돼 있던 각종 소총과 권총이 준비해 놓여진 총기점이 수시로 TV화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후 선거 캠페인 중이었던 버락 오바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총기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의 연간 총기 살인사건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해묵은 논쟁인 "총기규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즉 호주 35건, 영국 39건, 독일 194건, 캐나다 200명에 비해, 미국 9,484명(미국내 정식 등록된 총기는 약 2억5천만 정)으로 항상 총기로 인한 무차별 살상은 언제든 가능성이 때문이다.

이 같은 민감한 문제 때문에 미국총기협회(NRA)는 미국 내 가장 큰 정치계 로비단체로 총기단속 법안 강화를 주장하는 민간단체에 비해 10배 이상의 로비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 로비자금은 연간 총기판매로 이뤄지는 소득에 비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내 400만 회원을 보유한 NRA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경쟁자인 버지니아, 오하이오 등지에서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 모두 총기 규제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미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와 정치적 파워를 누구보다 잘 알

그러나 두 후보는 총기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두 후보를 향해 총기규제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양측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번 사건이 전 해진 직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두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힐 때가 됐다"며 "총기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2007년 버지니아에 참사 이후 졸군 총기 소유 금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에게는 총기규제 목소리를 높였던 과거가 있어 이번 '침묵'이 더 의미심장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호신용이 아닌 공격용 총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한때 강력한 총기 규제론자였던 롬니는 1994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NRA와 노선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특히 롬니 후보는 매사추세츠 주지사 재직 시 총기 면허료를 4배 인상했고, 2004년에는 공격용 총기 소지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총

도덕적 사회적 보수...타 교단 후보도 지지

(2면에서 계속)

특히 동성결혼과 낙태 찬성론자들과의 전면적인 반대 운동을 선두 지휘하고 있고 최근 미디어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 사역은 교회공동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정치권에 반영하는 것이다.

△릭 조이너(Rick Joyner): 릭은 2009년 대규모의 초교와 운동(the Oak Initiative)을 발전시켰다. 즉 교단이나 교회와는 상관 없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나 쟁점들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기도해 빛과 소금이 되라는 소명을 완수하자는 취지로 동성결혼과 낙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짐 가로우(Jim Garlow): 그는 웨슬리언 목회자이지만, 카리스마틱 교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샌디에고에서 스카이라인교회를 담임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을 지난 2008년 5% 차이로 통과시킨 주역이다. 그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을 사역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결론으로, 그동안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는 사회적 통합과 더불어 목시적 종말론으로 무장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분파들로 인식돼온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이 점점 적극적인 사회참여 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현장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끝)

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미국에서 더 강력한 총기 규제가 시행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지를 비롯한 미 언론의 공동된 견해이다(Why Don't Mass Shootings Lead to Gun Control?)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총기

소유권에 대한 지지세가 확고하다.

또한 현재 오차를 5% 미만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NRA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양 진영 선거 캠프의 판단이다.

(10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청빙

Texas 주 Houston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는 복음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1.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
2. 남침례교단 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M. Div학위이상)
4. 목회 경력 5년이상 되시는 분
5. 이중 언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는 분
6. 미국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성장과정, 목회동기, 가족관계, 신앙관, 등)
3. 학위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4. 목사안수증명서
5. 최근 설교 CD혹은 DVD 2회
6. 최근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7. 본교회 목회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서
8. 추천서(2인)

제출기한

2012년 8월 31일(당일도착분에 한함)

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주소: 9560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홈페이지: http://www.hnbc.org
Tel) 713-722-0773, Fax) 713-722-8929 e-mail) hnbcoffice@gmail.com



본교회는 7 acres(304,920 sq ft)의 부지위에 54,000 sq ft에 달하는 4개의 건물(Sanctuary, Gym, Education, Office build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절대희망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 소중한 4가지 교훈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

고, 밧줄은 높은 산 오를 때 필요한 것이다.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이고, 믿음과 소망은 시대가 암울할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그리운 때이다. 역사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희망이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착취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다. 사실 모세에게는 바로와 대항할 만한 능력도, 백성들을 인도할만한 지도력도, 저들을 설득할 만한 웅변술도 없었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묻는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를 이용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 이 지팡이를 아무 쓸모 없다고 집어던졌을

때 뱀이 되어 모세를 물려고 했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전능한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

R.W. 에머슨은 "믿음은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은 종달새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 새가 입을 여는 어느 날 종달새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것이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라.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의 입으로 실패를 속단하고 불행을 예언하지 마라. 인생의 종달새가 입을 열게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여러분 앞에 내리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은 겨우 손바닥만 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

름이라면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나비를 볼 것이다. 축복의 소나비를 볼 것이다. 기적의 소나비를 볼 것이다.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손바닥만 한 구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것이다" 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의 씨앗과도 같고 부정적인 말은 파괴의 폭탄과도 같은 힘이 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손바닥만 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덮는 소나비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전부 아니라면서 세상과 미래를 선하게 내다보고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 곧 '비전'을 가지라고 말한다. 중학생 때 불의의 사고로 앞을 볼 수 없게 됐지만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였던 박사였고, 세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했던 그가 있다. 그는 미 연방정부 최고공직자로 영광스럽게 은퇴를 했다. 그가 바로 고인이 된 강영우 박사다. 그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믿

는 믿음으로 얻은 절대희망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우리는 늘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곳에서 절대 신앙, 세상 사람들이 안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박차고 일어서게 하는 절대 희망을 보여준다. 가난해도 당당하기만한 성도. 실패 속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는 성도. 병들은 몸으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성도. 그런 삶이 절대희망의 표상이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드디어 은혜의 비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나를 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면서 은혜의 소나비를 맞으며 빗속을 반드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도 약속의 구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절대희망의 사람으로 그 은혜와 기적의 소나비를 맞으며 그 축복의 빗속을 달려가자!

푸/ 른/ 초/ 장

김수명 목사
(타코마한인장로교회)



한국에 살고 있는 주한미군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오래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때"라고 하는 풍자 글이 몇몇 웹사이트에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주차장에서 차를 뺐 때, '오라이 오라이'를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냉면 먹으면서 가위로 잘라주기를 바랄 때, 별 이유 없이 일본이 싫어질 때와 같은 것들이 자기 자신이 한국에 오래 살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친구가 노래 부를 때 '아싸, 아싸' 하면서 베이스를 넣을 때나, 소주 마시고 '카야' 하는 소리가 나올 때, 고향인 뉴욕에 왔다가 패스트푸드점 중 롯데리아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이 미국사람임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오래 살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잘 모르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때, 어깨를 들썩하는 행동,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서 붉은 신호등에 파랑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카메라가 없어도 기다리는 일, 긴 줄도 불평 없이 서게 되고, 한국인과 얘기하면서 영어단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하는 습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미국 생

활에 습관들여진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술 담배는 자신의 건강을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많은 화재나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중독이 될 정도로 습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몸에 밴 의식과 말과 행동에 수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0%가 습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습관은 같은 행동을 오랜 기간 동안 되풀이 할 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의식, 말과 행동입니다. 습관이란 한자풀이도 "어린 새

가 백번 날개 짓으로 나는 것을 익힌다"는 뜻의 익힐 습(習)자와, 익

숙할 관(慣)자로, 반복해서 익숙해진 것이 습관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끈다는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수많은 습관들 중에 3가지만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1. 기도의 습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

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신 가운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를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화되어버린 몸이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특권이요 영육

나, 비꼬거나 꼬집는 말, 들어서 무엇인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 습관화 된 사람은 그것이 조커나 농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전혀 배려 없이 유머로 생각하고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죽인 사람이 갈로 죽인 사람보다 많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말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멸망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아니합니다.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익숙하게 습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서울 중앙부처에 공무원 몇 분이 모처럼 서해안으로 낚시를 하러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주일이었는데, 특히 그 중에 한 분이 세례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결사적으로 남편을 말렸습다. 결국 그 분은 친구 분들과 합류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다. 이 부부는 나중에 TV 뉴스에서 그 친구들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 모두 사망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름다운 습관이 확고하게 형성해야 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품성을 이루고, 품성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습관들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좋은 습관보다 쉬운 나쁜 습관을 택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다.

습관
마가복음 1:35

간에 축복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습관인 줄 압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게으른 육체의 소욕으로 실천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의 힘이 확고하게 잡혀지게 되면 나태해지려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기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습관인 것입니다.

2. 언어의 습관

어떤 사람의 말에는 가시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찌르거나 상처를 주는 말에 습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지시 남의 인격을 격하시키거

남의 얼굴에 피를 뱉으려면 내 입에 피를 담아야 합니다.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 오물 담으면 오물그릇이 되고 맙니다. 그릇은 담는데 따라 가치가 달라지듯, 우리의 입에 감사, 격려, 사랑, 칭찬, 기쁜 소식, 소망과 위로, 화목케 하는 말 등 값진 말을 담은 값진 입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예배의 습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생활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 **밥(Bo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난 유월절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원, 농사적 상황, 성령의 계시의 식을 까지도 알기 쉬운 한문도대체로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해결되지 않았던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일 목사

- 한국신대원 총장
- 에베살렘대학성경지도역사학과 석사
- 현성지대 대학원 석사
- 현세이브 대학원 석사
- 현한국어사서예연구소 연구위원
- 현미시간대학 석사

서울국제도서전 **BOOK FAIR 2012** 6.20. - 24. COEX A/B홀

http://www.israela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 밥이카데미의

● 한국인터넷주소 관리위원회 ● 홈페이지 www.israel.ac.kr ● 서울 서울로구이로동 164-3 ● 전화 02247-1104 ● 출판사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2

다음세대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하여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장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시카고 윗튼대학 빌리그래함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14차 KWMA 세계한인선교사대회와 MK선교사자녀대회 및 2012 CHICAGO GKYM Festival(18세-29세까지의 영아권과 7세-17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대회)이 함께 열리고 있어 부모와 자녀들 5,000여 명이 선교축제 한마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정보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을 지닌 선교지들은 선교의 열매가 많은 반면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선교현장이 더 어렵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유럽의 기독교는 이미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교회건축물들이 과거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독교는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데 세계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아온 미국교회가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자신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한국도 여러 가

는지 이것이 바로 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심지어 그들은 이슬람 십계명까지도 베풀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슬람이 한국의 유능한 유학생들을 해외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이슬람 신자로 포교해왔으며 지금은 한국의 각 기관의 요직에 그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교 교수들 중

있겠습니까? 우선 무엇보다 내 자식들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대부분의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제자훈련을 합니다. 과연 그 제자훈련이 미래와 먼 장래를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 성인이 되고 그

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세상과 격리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세상 속으로 나와야 하는데 온상에서만 자라던 꽃이 햇빛과 거친 비바람을 견디어 낼 수 없듯이 그들이 타락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때는 적응력이 없어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요즘은 한인교회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필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교회들은 많은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독교학교 교육에서도 실패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학교에게만 자녀들의 교육의 책임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학교(주일학교)가 함께 아이들의 교육의 일관성과 교육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교육과 문화 그리고 교육환경과 생활훈련 그리고 신앙생활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과연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롤 모델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교육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부모가 책임져야 잘 성장한 선교사자녀들, 선교사 역할 한몫 담당

지 이유로 기독교가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 아주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들에 의한 안티기독교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도 법적으로 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션스쿨의 경우도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정책에 의해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무슬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면서 '알라신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학교에서는 알라신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데 무엇이 맞느냐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왜 기독교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서 다문화교육정책이라는 이유로 이슬람을 가르쳐도 되

에도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있어 학생들의 논문이 이슬람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으면 학점을 주지 않는 사례까지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슬람 사원을 한국의 각 도시마다 세워간다고 합니다.

2008년에 한국인 이슬람 신자가 3만5천명이었는데 2010년 통계로 2년 사이에 두 배로 성장하여 7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향후 10년 안에 한국을 이슬람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슬람 나라들이 오일달러파워로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자니 무슬림 문화와 종교를 가르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크게 보면 세계 기독교의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

들이 부모가 세운 교회를 맡아 이어갈 때를 생각해본다면 여러분! 진정한 제자훈련의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 제자훈련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진정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 가정은 기독교가 정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얼마나 약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그리고 이방신이나 우상의 울무에 걸려들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정착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 크리스천가정의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Home Schooling)을 시

저는 이번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MK선교사자녀들! 이전에는 어리기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더러는 성인이 되어 그들이 부모의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손에 이끌리어 선교지로 가야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말과 눈물 속에서 저는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로 선교사님들은 제자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선교사의 삶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들은 이미 훌륭한 선교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가정 선교사만만큼은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차세대연구소: (714) 699 02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 문제를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벨 플라워에서 김 집사

A: 그렇습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자기의 어떤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종교들입니다. 불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가톨릭 등 모든 유산종교들이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려는 것은 마치 흑인이 자기의 까만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 피가 나도록 비단고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표범이 자기 얼룩을 지울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미션'(Missio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는 로버트 드니로가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살인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은 가톨릭의 참회(Penance) 즉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몸을 있는 대로 학대하여 수백 미터가 되는 절벽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기도 하고 십자가를 몸에 매달고 폭포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동생을 죽인 죄책감을 떨쳐 버리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교훈은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선행으로도 없애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구원론에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하면서 3장에서는 전 인류가 죄인인 것을 결

영국 회의론자 "시릴 조드"가 좋은 예

론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구원의 길을 지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믿기만 하면 구속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의 은총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회의론자 중에 "시릴 조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세계에서 이름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런던 대학 철학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예수나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에게 좀 더 시간을 주어 인간이 바른 교육정책을 펴면 지구상에서 얼마 후에는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학생들에게 무신론적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는 두 번의 세계전쟁 즉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의 마지막 3차 대전이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그 죄를 해결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8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지에 자기의 생의 변화를 간증으로 실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고 그의 인생은 밝아진 것입니다.

JoyLA.com

Frelle 기존의 어떤 샴푸기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샤워기 혁명!!

프렐 마이크로버블 샤워기

아직도 일반 물로 샤워 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이 샤워시 만족할지마다 세균의 침포수를 계속 낮게 하시겠습니까?

드라마 로얄패밀리에 소개
선물적 인기를 얻은 제품

마이크로버블이란?
마이크로버블이 0.05mm 이하의 초 미세기를 포함합니다. 마이크로 버블 수는 피부결함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부의 pH, 세포막에 효과가 있으며 우수한 살균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에는 불어넣어 부드러운 미끈한 느낌을 줍니다.

물로 느껴지는 마이크로 버블효과

1. 나이프자른 피부결함 완화(30일후)
2. 나이프자른 흉터 완화(30일후)
3. 피부결함 개선 효과(30일후)
4. 얼굴의 기공과 밀폐(30일후)
5. 피부결함 개선 효과(30일후)
6. 미끈한 피부(30일후)
7. 미끈한 피부(30일후)
8. 미끈한 피부(30일후)
9. 미끈한 피부(30일후)
10. 미끈한 피부(30일후)

아토피 피부염도 완화 및 가려움증도 완화
여드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됨

여드름 피부노폐물 제거 및 가려움증, 피부염도 완화로 인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됨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 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스트롱 원어코드

NEW 성구사전

개역개정판

360,000절이 수록된 혁신적인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

New Bible Strong's Concordance

로고스 STRONG CORD

히브리어·헬리어 사전

HEBREW-GREEK DICTIONARY

개역개정판

로고스 NEW 성경사전

LOGOS BIBLE DICTIONARY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히브리어, 헬리어를 정기간, 문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
어려운 단어를 구별하다 대조하여 명기함, 단어를 스트롱코드를 붙여 활용도를 높임
단어에 한자와 영어를 명시하여 이해를 도움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오이(Oy)



오이족 인구는 대략 16,000명 정도이며, 라오스 남부의 비옥한 땅인 볼로벤 고원지대에 거주한다. 이 고원은 해발 약 3,500피트에 위치하며, 한때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나 내전, 뒤떨어지는 교통, 농작물 질병 등으로 인해 커피, 면화, 담배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 오이족의 조상은 9-13세기에 흥

왕했던 대 크메르 제국 사람들이었다. 번성기의 크메르 제국은 현재의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부를 포함하는 대제국이었는데, 타이 족과 베트남인들의 침입 후 쇠퇴했다. 앙코르로 알려진 캄보디아 왕국의 중심은 볼로벤 지역에 위치했으며, 이곳에는 현재에도 8-12세기 유물과 유적의 옛터들이 있다.

근대에 라오스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 라오스를 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해왔다. 오이족이 세상에 별로 알려

지지 않은 관계로 오이족의 구체적인 생활양식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는 매우 적다.

삶의 모습

오이족 대부분은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로 화전 농사법을 사용한다. 거주 지역에는 잡곡과 키가 큰 풀,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으며 숲에는 야생 대추야자, 마호가니, 티크, 자단 등과 같은 활엽수와 딸기나무, 콩, 고구마 등도 있다. 이 지역의 땅은 현무암을 포함하는 적색 토양으로 이는 고구마가 자라는데 좋은 토양이다. 일단 초목을 태워 땅을 깨끗하게 한 다음 그 땅에서 3-4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하고는 이후에는 새로운 땅으로 이동한다.

이들의 주된 농작물은 쌀이지만 카사바, 고구마, 바나나 등도 많이 키운다. 오이족은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도 숲에서 팔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어낸다. 물고기를 잡아 이것으로 단백질 섭취를 하기도 한다.

오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이며, 가족의 지도권은 가장 나이 많은 남자 어른이 갖는다. 오이족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는 마을이다. 마을의 수장이 각 마을을 다스리며, 마을의 수장은 마을 공동체의 일을 두루 살피며 마을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한다. 이들은 라오스 국민들이기 하지만 정부에서 활동하는 특별한 정치적 대표자는 없다.

신앙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종족들은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오이족 사람들은 전통 민족종교를 계속해서 믿고 있다. 이들의 종교의식에는 정

령송배와 조상숭배의 요소들도 포함돼 있다. 자연 사물들이 선한 영과 악한 영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나무와 들판, 부모와 조부모, 질병과 신비한 힘 등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은 영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며 끊임없이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며 특별히 마을의 영을 두려워한다.

오이족 사람들은 또한 질병이나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마법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술사에게 의지하거나 보호하는 부적을 사용한다. 또한 사람들은 영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당(영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마을의 종교적 성직자는 다양한 영혼을 모시는 제사를 맡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집전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오스의 경제는 대개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전, 1975-79년 마르크스 경제론 적용, 기술자들의 해외 도피 등의 영향으로 라오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만약 적절한 교통수단, 노동력, 기술력이 지원된다면 볼로벤 고원지대의 사람들에게 무한한 잠재가능성이 있다. 농작물은 매우 풍작을 이루고, 알루미늄과 보크사이트가 매장되었으며 수력발전소의 건설이 가능하다. 라오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오이족은 전쟁의 상처가 깊은 종족으로 감성적인 치료와 영적인 소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한 개의 선교단체가 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맥도날드 성경모임, 중단 위기

[미션 라이프]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진행된 노숙인 성경 모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크리스천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다운 마르티네즈(33·사진)는 미국 뉴저지주 캠프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2년 전부터 성경 모임을 인도해왔다. 동네의 노숙인과 약물 중독자 등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다. 그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손님이 뜬 한 늦은 시간에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매장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성경 말씀을 나눴다.

하지만 2년 동안 지속돼 왔던 모임은 고객 한마디에 사라지게 됐다. 맥도날드 관계자가 마르티네즈에게 "다른 종교를 가진 손님들이 그 성경 모임에 불만을 제기했다"며 성경 모임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선한 뜻으로 봉사해온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고객 불만이 접수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르티네즈는 "지난 2년간 매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된 모임을 하루아침에 없애야 하는데 참담함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모임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장에서 종종 마주치는 이슬람신자들이 기독교 모임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에 캠프의 맥도날드 점주는 "모임의 성격 때문에 중단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보도 계임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할 때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16일 마지막 성경 모임을 가진 마르티네즈는 월요일 기도회를 가지면서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다.

영국교회 지난 5년새 1,248곳 늘어

영국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교회가 1248곳 늘었다고 18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영국 통계전문가 피터 블라이얼리 박사는 "기존 교단들은 그동안 1101곳의 교회를 폐쇄했지만 오순절 교단과 소수민족 대상 군소교단들의 활발한 개척에 힘입어 전체 교회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블라이얼리 박사에 따르면 오순절 계통 교회는 668곳, 군소교단 소속 교회는 1460곳 증가했다. 현재 영국에는 가톨릭교회를 포함해 모두 5만734곳의 교회가 있으며 목회자는 3만6600여명이다.

영국 교회는 수십 년간 쇠퇴를 거듭하다 2005년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다. 교회 수뿐 아니라 예배 출석 성도 수도 안정화되고 있다. 현지 조사기구인 크리스천리서치에 따르면 성공회의 예배 출석 성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20만명 수준을 유지했으며 집례교는 2002년 13만9000명에서 2010년 15만4000명으로 늘었다.

영국 신학단체 데오스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파고든 교회들과 이주민 교회의 부흥이 영국 교회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는 세속화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시리아아청년, 시리아 탈출 한국 난민신청

시리아 정부군에 군장교로 임관할 예정이었던 시리아 대학원생이 "무고한 형제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며 지난 3월 시리아를 탈출,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다. 미션라이프는 지난 20일 서울 이태원에서 유세프 이브라힘(가명·사진)씨를 만나 10개월의 사실을 보도했다.



시리아는 지난해 3월19일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5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

으로 지금까지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내전을 겪는 중이다. 정부군과 반군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소수인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고향을 떠나 인근 국가로 몸을 피하고 있다.

이브라힘씨는 "수많은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천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켜온 보금자리인 마아룰라 및 다마스쿠스의 밤부마 마을 등을 떠나 요르단 등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시리아 내전이 이슬람교의 시아와 순니의 종파 분쟁 성격을 띠면서 약자인 기독교인이 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기독교인은 인구의 10%인 220여만 명으로 다수인 이슬람교 신도와 공존해왔다.

그는 "아사드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면서 정부군의 장성급까지 터키나 요르단과 같은 인접 국가로 이탈했다"며 "인시방편으로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강제 징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군이 되면 어린 아이가 사는 집을 탱크로 공격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텔레비전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고 한국이 나의 피난처가 되리라 생각했다"며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브라힘씨는 피난하기 전까지 다마스쿠스에서 1년 동안 겪었던 시리아 내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 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나자 지난해 3월 시리아 남부의 다르아 지역에서 초등학교 25명이 손톱을 뽑히는 벌을 받았다. '정권 퇴진'이라는 글씨를 철판에 적었다는 이유였다"고 떠올렸다. 이어 "국제사회가 강제 개입해서라도 아사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첫 난민 신청자인 이브라힘씨에 대해 "심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미 보이스카우트에 동성애 옹호자 비판 거세

11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보이스카우트가 지난 17일 동성애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자 동성애 옹호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인터넷 판이 지난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

한다고 밝히고 있고 군대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정책이 폐기됐으며 성공회에서 동성결혼을 축복하고 있는데 무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미국 걸스카우터나 보이스 앤 걸스 클럽 등은 이미 동성애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최대 동성애자 권리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의 차드 그린린 회장은 "나라가 (동성애자에 대해) 포용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보이스카우터 지도자들은 분열과 비효율을 가르치기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필라델피아 드렉셀대 로스쿨 데이빗 코헨 교수는 "보이스카우트는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며 "이 정책을 고집하면 결국 시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이스카우트는 직원, 자원봉사자, 회원들의 성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보이스카우트 목적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회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2명의 여성 레즈비언 커플을 부모로 두고 있는 한 보이스카우트 출신의 청년이 이 규정을 철폐해달라는 27만명의 청원서 모아 제출했고 지난 4월 보이스카우트 산하 프로그램으로 7세 남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걸스카우트의 한 소그룹 리더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리더에서 박탈당하자 이 조치를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미국보이스카우트는 지난 2년 동안 이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고 이번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로버트 마주카 미국보이스카우트 대표는 "우리가 섬기는 청소년들의 부모 대다수는 동성 성적성향에 대한 이슈는 가족 내부적으로 영적인 상담가들과 함께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환경에서 다루고 싶어한다"며 대다수 보이스카우트 부모들이 원해서 동성애자들의 회원 가입 거부를 지속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언론들은 이같은 결정이 보이스카우트의 후원자들 가운데 종교단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이스카우트 후원자들 가운데 종교단체는 1995년 40%에서 2001년에는 62%까지 증가했다. 물론교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청소년들의 보이스카우트 참여를 필수로 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물론교는 보이스카우트 회원 중 12%, 전체 보이스카우트 후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98. "신의 언어"와 BioLogos (1)

"신의 언어"는 사람의 DNA 전체를 읽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유명한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S. Collins)가 2006년에 출판한 책으로 한글말로도 번역되었다. 저자가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었고 책 제목이 거창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무신론 과학자가 유신론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설교들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 책의 내용은 반과학적인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다. 콜린스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자기의 명성을 사용하여 BioLogos란 새 이름으로 재포장한 것이다. 여기서는 콜린스 박사처럼 많은 과학자들과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한다.

콜린스는 자기의 BioLogos의 믿음 6가지를 소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는 시작하였지만 사람이 되는 순간까지는 직접적인 간섭을 일체 하지 않고 진화되게 내버려 두었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의 믿음이다. 이 확인할 수 없는 (즉 과학적이지 아닌) 믿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는 140억 년 전에 빅뱅으로 창조되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극적으로 조성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생명체가 탄생한 후에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진화되어 현재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인간도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뿐이며 유인원과 조상을 공유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도덕적인 성품과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신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

콜린스는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C. S. 루이스의 변증을 통해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그는 루이스가 설명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의 근원에 대한 변증에 매료되었고 동시에 의사 일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유신론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루이스의 변증과 그동안 무신론자로 살면서 쌓아 놓은 진화론이 그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의 근거가 진화론의 믿음으로 가득 차

진적인 진화를 포기하고 구두점식 진화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을 받아들였다(Science지, Evolution Under Fire, 1980).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과학적 오류들도 발견되고 있다.

1. “태양이 지구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무질서의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을 극복하고 무생물에서 생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96). 그러나 그 에너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말이다. 죽은 막대기와 살아 있는 가지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 180도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 시스템이 없는 무생물은 열역학 2법칙에 따라 더욱 무질서해 질뿐이다. 지금도 그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체를 조립할 수 없다.

2. “방사능 붕괴 과정을 이용해 멸종된 종의 나이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p. 98). 거짓인 진화론은 진화론자들까지도 속이고 있다. “화석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뼈들은 당시에 살고 있는 가지를 태양 에너지에 대해 180도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 시스템이 없는 무생물은 열역학 2법칙에 따라 더욱 무질서해 질뿐이다. 지금도 그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체를 조립할 수 없다.”(Argument over a woman, Discover 11(8):58, 1990). 진화

독감 H5N1 변종 바이러스(p. 136)를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junk DNA(p. 137)라는 단어를 사용한 콜린스가 진화의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이러스의 변화는 한계가 있는 변이(variation)일 뿐이므로 진화의 증거로 바이러스의 변화를 들지 않는다. 또, junk DNA라는 단어는 흔적기관과 같은 맥을 가진 단어인데 우리 몸에 쓸모없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던 지난 시대의 단어다. 지금은 진화론자들도 junk DNA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콜린스의 “신의 언어”는 잘 알려진 과학책도 신학책도 아니다. 콜린스는 20세기 생물학의 최고 업적이라고 부를만한 일을 하였다. 사람의 유전정보 30억 개의 DNA 염기 순서를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은 1990년부터 13년 동안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수행한 것이다. 콜린스는 이 대항과제의 -과학보다는 비즈니스에 바빴을-책임자였을 뿐이다. 더구나 그 유전정보의 1차원적인 의미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3차원적인 정보까지 생각한다면 과

전향한 콜린스 신앙 근거는 진화론 믿음으로 가득 차 최근 진화론, 점진적 진화 포기 구두점식 진화론 채택



유신론적 진화론

성경을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적 배경 지식으로 피조 세계를 관찰한 결론이다.

론자인 Shreeve의 말이다. 화석은 연대측정을 하지 않고 진화론에 맞추어 그냥 결정된다는 비밀을 콜린스도 역시 모르고 있는 것이다. 화석은 연대측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않는다. 이 사실은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진화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 순수한 진화의 믿음으로만 만들어진 허구란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3. “의학도 진화론을 피할 수 없다”(p. 134). 이 주장은 아주 도발적일 뿐 아니라 속이는 말이다. 실제로 진화론 덕분에 의학이 발전한 예는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지 않았을 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예들이 많이 있다.

4. “그러나 드문 경우, 이 돌연변이가 뜻밖에 약간의 선별적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표면으로 드러난다”(p. 134).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소망하는 상상이다. 현재까지 수십만 건의 돌연변이가 보고되었지만 이런 예는 단 하나도 없었다.

5. HIV 바이러스의 변이가 조류

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은 아직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을 기반으로 창조와 신을 논하거나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이름을 내고”(창세 11:4)라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보는 것 같다.

콜린스는 창조론 지지자들과 진화론 지지자들의 “싸움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p. 104)라고 하면서 타협점으로 유신론적 진화론을 새롭게 포장한 BioLogos를 제시한다. 그는 알만한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창조와 진화의 진실에 대해 싸우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 신자일 것 같다. 콜린스 박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논쟁이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과학보다 더 중요한 복음(생명)에 관한 것이라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단 하나뿐인 우주와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설명에 의해 바뀌지 않으며, 그 속에 복음이 들어 있으므로 성경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복음의 이해와 성경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완전한 신뢰를 두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많았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sh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별거벗은 왕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칠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칠십칠배이리로다 하였더라”(창4:23, 24).

자기를 상처 주는 자를 죽이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비록 애들이라도 죽였노라고 그걸 자랑이라고 노래를 만들어 아내들을 불러다 들려주는 라멕입니다. 하나님에게 경외심이 없는 가인의 후예가 5대째로 내려와 라멕이 살인을 밥먹듯 하는데 하늘에선 아무 일이 없으니 가인의 살인에 대한 별이 7배라든, 내게는 별이 77배쯤 되었겠네... 어디 별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있거나 한가? 주먹이 왕이다. 살인자가 인 할아버지의 77배나 사람을 죽여도 대적할 이 아무도 없는 이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겨우 5대째인데 목축업과 쾌락을 위한 악기 등과 심지어 동과 철로 된 날카로운 기구들이 등장하여 문명도 급속히 발달해 하나님을 떠나 에덴을 나온 가인의 자손들이 자신을 위해 엄청나게 개발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과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다스림을 포기하신 것이요? 언제 어디에서 힘센 놈이 나타나 자리를 빼앗을지 불안해 초비상 전이상태입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상태로 인간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간섭을 안받아 좋을 것 같아도 결국 생존위해 실력대결의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없이 죽어야 하고, 피는 피를 부르고 남는 것은 자기방어로 죽고 죽임당하는 아비규환입니다. 과연 라멕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별이 임하지 않았는지? 그의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 비위를 거슬리면 어른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마구마구 사람을 죽여대며 라멕은 그걸 자랑삼아 노래를 불러대는 극악무도한 전문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인간미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여자들을 힘센 남자를 위한 노래, 노비의 수순이어서 짝 소리도 못하고 인격도 없고 의견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사나운 남편의 처분에 무서워 떠는 맹종이 있을 뿐, 남편의 말갈지 않은 말이 법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뎠지고 오히려 죄를 많이 질수록 힘이 센 남편으로 보이는 힘이 좌우하는 혼동된 사회이니 저들에게서 무슨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자랑한 변영이 진정한 변영이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고 동물적인 근성과 마귀의 성품이 대치된다면 그것이 인간입니까? 육신의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성품이 떠난 자는 살았다하나 죽은 자입니다. 최악의 벌은 상실한 마음에서 하고픈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마음은 최악의 공장입니다(롬 1:18-32). 죄는 짓는 자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마귀에게 가까워집니다. 비위가 상한다고 마구잡이로 죽여대는 살인마 라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최악의 벌을 받은 줄도 모르고 교만을 떠는 인간 말종의 상태입니다.

주님 없는 마음은 지옥입니다. 오직 생명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 복의 통로입니다. 걸어다니는 복덩이이지요. 하나님사랑으로 넘치는 삶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게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쉬지 않고 범죄하는 쓰레기 같은 영혼일지라도 온갖 욕심에서 돌아서면 쉼을 주시는 주님! 죄의 소용돌이가 노도같이 올라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는 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의 고통사라져~”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피를 감사합니다. 모든 부질없는 분주한 세상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 | | | | | | | |
|--|--|---|--|---|---|---|--|
|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7-8263, Fax: (303)427-8263 7733 Kipling St, Arvada, CO 80005 | 풍고메일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973)222-0281, 977-479-7777 Fax: (973)222-0286 2890 Morris Ave, Lodi, NJ 08868 |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한국)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미국)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717)942-1612, Fax: (717)942-1612 1530 Woodbine Rd, Levittown, PA 19057 | 한일교회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410)282-2226, Fax: (410)282-2226 219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보스완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전 9:00 Tel: (307)344-6444, Fax: (307)344-6444 7000 Sandstone Ave, Boise, ID 83725 |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410)297-3444, Fax: (410)297-3444 7000 Sandstone Ave, Boise, ID 83725 |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704)847-6821, Fax: (704)847-6821 2616 Midway Rd, Charlotte, NC 28270 |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704)362-0900, Fax: (704)362-0900 701 Seaboard Ave, Charlotte, NC 28206 |
|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한국)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301)429-2181 8007 Pecan Ave, Ft. Detrick, MD 21740 |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한국)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206)427-2181, Fax: (206)427-2181 4043 E. 5th Ave, Seattle, WA 98105 | 시카고에브렐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47)994-8424, Fax: (847)994-8424 877 Schenck Rd, Prospect Heights, IL 60070 | 알라바마 재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한국) Tel: (205)870-8028, Fax: (205)870-8779 805 Kirby Ave, Little Rock, AR 72217 | 앵커리지델리안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307)344-6444, Fax: (307)344-6444 8230 Greenwood St, Aron, AR 70518 | 앨파소델리안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205)870-8028, Fax: (205)870-8779 5419 Aron Ave, Aron, AR 70518 |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Tel: (214)342-0286, Fax: (214)342-0286 701 Winnet Ave, Houston, TX 77042 | |
|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8:00 Tel: (281)434-8703, Fax: (281)434-8703 208 W. 8th St, Abilene, TX 79602 |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206)427-2181, Fax: (206)427-2181 4813 Marston Rd, Renton, WA 98055 |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04)299-7000, Fax: (804)299-7000 10201 Robison Rd, Richmond, VA 23225 | 큰문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410)282-2226, Fax: (410)282-2226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Tel: (253)832-1000, Fax: (253)832-1000 7461 E. Verde St, Tacoma, WA 98406 | 타코마사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253)832-1000, Fax: (253)832-1000 8702 E. St. Tacoma, WA 98406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253)832-1000, Fax: (253)832-1000 8424 E. Tacoma Ave, Tacoma, WA 98404 | |
|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한국)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480)778-0115, Fax: (480)778-0115 1102 E. Stinson Ave, Chandler, AZ 85226 |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860)649-4447, Fax: (860)649-4447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5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808)937-0911, Fax: (808)937-0911 1538-A Palolo Ave, Hialeah, HI 96818 |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전 10:00(한국) Tel: (303)729-7004, Fax: (303)729-7004 1063 3rd Ave, Broomfield, CO 80020 |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오전 10:00(한국) Tel: (808)937-2526, Fax: (808)937-2526 1367 E. Bartolotta Dr, Hilo, HI 96716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한국)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808)937-2526, Fax: (808)937-2526 2122 Metcalf Dr, Honolulu, HI 96822 | | |

남가주교계 기독교학교 설립추진 PRE와 CLASS ACT 주민발의안 상정실패 대안으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는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마감된 PRE와 CLASS ACT 주민발의안 상정 실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의 친동성애 교육을 저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그 대안을 밝혔다.



기독교학교 설립에 대한 취지 및 설명을 하고 있는 남가주교협 관계자들.

지난 20일 JJ그랜드호텔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교협관계자들은 "작년에 통과되고 올해 1월부터 발효된 SB48법안 저지를 위해 실시된 주민발의안 서명운동이 상정가능 정족수 미달로 실패됨으로 인해 신앙과 가치관을 뒤흔드는 영적, 도덕적 혼돈상태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빠뜨리게 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학교를 설립해 자녀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 비록 이번 주민발의안 상정 실패로 친동성애 교육을 막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암적인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교협이 주축이 되어 남가주의 모든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음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300명 이상 규모의 교회에서는 킨더가트와 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500명 가량 모이는 교회의 경우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대학교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근본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심어지게 되는 시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킨더가트와 초등학교부터 설립하여 친동성애 교육으로부터 세뇌당하지

동성에 교육반대서명운동위원장인 교협부회장 박성규 목사는 "학교 설립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300명 이상 모이는 자체건

않게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현직 교장 및 교육가들을 위시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협은 이를 위해 지난 17일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변영의 목사, 진행위원장에 박성규 목사, 고문에 미기총직전 회장 송정명 목사, 성시화미주대표 박희민 목사, 그리고 자매대표 김준근 장로를 추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PRE와 CLASS ACT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아쉬운 실패로 막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지난번 "PRE발의안이 통과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표창한 것에 대한 신속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해 언론사들이 오보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지난 6월11일 마감된 PRE는 주민발의안 상정 가능선인 504,760표에서 186표를 남겨 발의안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California Security of State에 상정할 숫자를 보내는 ROV(Resister of Vote) 오피스 중 한 곳에서 문제를 제기, 재검표를 한 결과 뜻하지 않은 무효표가 추가로 발견돼 상정실패가 됐다. 또한 CLASS ACT는 유효 서명숫자가 45만 정도여서 상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박준호 기자)



OC전도회연합회 주최 한여름 성령축제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학봉 목사.

OC전도회연합회 주최 한여름 성령축제 장학봉 목사 강사로 주님의교회, 은혜한인교회에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는 장학봉 목사(한국 성안교회 담임) 초청 한여름 성령축제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에서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각각 개최했다.

지만 타인과 아름다운 관계성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광신은 타인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만 자광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신은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에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왜지 이런 사람과 있으면 푸근해지고 뭔가 반반고 싶어지는 것이다. 성경에는 빌레몬이 이런 사람에 속한다"고 말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새생명 축제와 함께 열린 18일 집회에서 장학봉 목사는 "균형 잡힌 삶은 건강하다. 신앙생활도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외골수가 되거나 애타단지가 된다"고 설명하며 "신앙생활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맹신, 광신, 참신이다. 맹신은 내 안에 나를 가두고 믿음이라는 가치관으로 살

장 목사는 "균형을 잃은 믿음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을 끝내야 한다. 균형 잃고 표류하는 믿음생활을 끝내고 하늘을 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울타리선교회13주년 감사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나주옥목사.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린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김승곤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울타리선교회 창립13주년 감사예배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 창립 1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22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드려졌다.

김승곤 목사(나성서부교회 원로)의 요한계시록 강의가 매주 화요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리고 있다.

김승곤 목사 요한계시록 강의 계속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 '일곱 촛대'로 나타난 일곱 교회'라는 제목으로 일곱 번째 강의를 나선 김승곤 목사는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된 일곱 촛대는 교회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금촛대는 교회의 목적, 교회의 구성, 그리고 교회의 원동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정금 같아야 한다. 정금은 연단의 연단을 거쳐서 나오는 순금이다. 교

회는 정금처럼 시련 등 연단을 통해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작은 예수인 신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길 기대하는 불신자들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자들과 별 차이 없이 살고 있는 자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한다. 첫째, 빛이 되려면 정금과 같은 촛대가 돼야하며 둘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기름을 한국교회가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주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날마다 개혁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한국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계속 진행된다. (박준호 기자)



신앙 강좌에서 오강남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새길교회와 향린교회가 함께여는 신앙강좌 강사 오강남 교수

향린교회(담임 객건용 목사)와 새길교회(예배담당 최영숙 목사)가 함께 여는 신앙 강좌가 오강남 박사(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0일부터 22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이제는 오늘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동방의 정신에 담긴 것과 같은 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표층적인 것을 넘어 심층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한다. 기독교가 표층적인 것에 머무는 것은 비극이다. 그것은 종교적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앙은 발달돼야 한다. 마치 자전거가 서있지 말고 가야 하듯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닌 깨닫는 믿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향린교회에서 '21세기 종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첫날 강좌에서 오강남 교수는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은 불교와 도교 등 타종교에 비해 심층적인 면을 잃어서이며 표층적인 것에 비중을 두어서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번 신앙 강좌는 둘째 날 '종교, 심층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향린교회에서, 그리고 셋째 날은 새길교회 예배시간에 열렸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 | | | | | | |
|---|--|---|--|--|--|---|
| 뉴욕셋째마녀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선교기도회: 오후 8:00 |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택원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 담임목사: 이현호 주일예배: 오전 7:30, 10:00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계원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뉴욕주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예배: 오전 8:30, 11:30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혁호 원로목사: 방지강 1부일예배: 오전 7:15, 9:45 2부일예배: 오전 10:15, 12:45 3부일예배: 오후 1:30, 4:00 4부일예배: 오후 7:30, 10:00 사제기도회: 새벽 6:00(월-토) |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12: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메디니교회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예배: 오전 7:30, 10:00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예배: 오전 8:00, 11:30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계철 1부 기도회: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45 4부 예배: 오후 2: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근 주일예배: 오전 12:30, 4: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현호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윈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예배: 오전 8: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윈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8: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미아름 주일예배: 오전 11:30, 12: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985-0009 N.Y.: Tel. (718)886-6400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985-0009 N.Y.: Tel. (718)886-6400 |
|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종원 주일예배: 오전 8: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예배: 오전 8:30, 11: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병연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병관 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사제기도회: 오후 8:30 | |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임시총회 8월 27일

헌법 통과 · 건물이전 안건 상정

과 관련한 상담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실행위에서 뉴욕청소년센터 이사 한재홍 목사는 "현 교협건물은 청소년센터 활동을 위해 구입을 했다. 엄밀히 따지면 청소년센터 이름으로 모금을 하여 구입하고 교협에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가출청소년을 위해 써나사이드에 구입한 건물이 용도변경과 관리가 힘들어 건물을 처분하기로 했다. 68만 달러에 산 건물을 105만 달러를 받고 팔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건물 이전은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면 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주일예배시간 변경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주일예배시간이 일부 변경됐다. 1부 오전 8시30분, 2부 오전 10시 30분(기존 10시), 3부 오후 12시 15분(기존 12시), 4부 오후 2시로 이어진다. 교회학교는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오전 10시30분, 오후 12시15분 2회에 걸쳐 드리게 된다. 영어예배(QPEM)는 그대로 정오에 드린다. ▲문의: (718)886-4040

가스펠 모음집 무료 배포

우병만 목사(교회일보 발행인)의 가스펠 모음집을 무료로 배포한다. 신청방법은 섬기는 교회와 담임목사 이름, 직분, 개인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이메일(churchus@gmail.com)로 보내면 우편으로 우송한다. 팩스번호 신청도 가능하다. 팩스: (347)506-0847 개인당 1개, 한 가정당 2개, 교회는 10개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18)690-6068

무료미술교실

새생명선교교회(담임 장숙희 목사)가 지역선교를 목적으로 '무료미술교실'을 오픈했다. 매 주일 오후 2-3시. 수강료, 재료비 모두 무료이며 강사는 이희승 전도사. ▲문의: (347)256-4222

뉴욕장로연합회 조찬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이보춘 장로) 조찬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 플러싱 선교관(35-14 파슨스 블러바드)에서 열린다. ▲문의: (718)361-1699

'뉴욕나눔의 집' 이전 감사예배

한인 노숙인 쉼터 '뉴욕나눔의 집'(대표 배영란 권사, 이사장 박성원 목사)이 8월 5일(주) 이전감사예배를 드린다. 새 장소는 뉴욕평화교회(담임 박성원 목사) 비전센터(148-01 34애브뉴 플러싱). ▲문의: (718)539-9090

장학생 모집

뉴저지 지구총교회 장학재단이 '에드워드 옹호김 스칼라십'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시민권/영주권 소지 한인대학생(12학년 졸업생 포함) 대학원생으로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교회 홈페이지(www.globaltouch.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장학금 신청서류, 간증문, 재학증명서, 시민권/영주권 복사본, 최근 성적표, 목사 교수 추천서 2장, 2012년 신입생의 경우는 부모동의서 등을 교회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543-9955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오는 8월 27일(월)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0월 15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총회에서는 건물 매각과 헌법 통과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 같은 안건은 지난 1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지난 총회 때 통과되지 못한 헌법을 이번에 통과하려는 것이다. 회장 양승호 목사는 "청소년센터는 교협 산하기관이다. 모든 것이 교협 임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되고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교협의 모든 재산은 처분하거나 살 때는 총회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승호 목사는 "현재 교협 건물은



KCBN 라디오 전달식에서 문석진 목사와 박선숙 사모, 노인대표, 유니온플라자케어 관계자가 기념촬영했다.

미주기독교방송 수신기 100대 기증 유니온플라자케어센터 입원 한인노인들에게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이 플러싱 유니온플라자케어센터에 있는 한인노인들에게 수신기 100대를 기증했다. 지난 19일 오전 전달식을 가진 문석진 목사는 방송을 청취하는 노인들이 있는지 확인하며 "지난 23년 동안 KCBN이 방송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인 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청취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니온플라자케어에는 280명의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데 그중 200여명이 한인이다. 장애인선교로 시작한 우리로서잡은손(대표 박선숙 사모)이 동 건물에 지어진 17년 전부터 매주일 예배(설교: 김용철 목사)와 목요예배(설교: 박선숙 사모, 노기송 목사, 나광수 목사, 박마미 목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수신기 기증은 지난 6월 KCBN 공개모금방송(총모금액 33,260달러) 행사 중 박선숙 사모의 아이디어로 수신기 기증을 목적으로 한 헌금을 받게 된 것. 한 독자가 2500달러를 헌금함으로써 이번에 100대의 수신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됐다. 전용라디오와 WMBC TV 63.9 등을 통해 뉴욕, 뉴저지 일대에 송출하고 있다. 또 인터넷(www.KCBN.us)과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오피스 기능밖에 없다. 100-150석 정도로 세미나를 열거나, 임실행위 모임을 할 수 있고 청소년센터를 위한 공간도 주고, 손님 접대도 하고 교협사업 관련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청소년센터와 함께하는 교협건물 이전의 청사진을 밝혔다. 현재 유니온에 위치하고 있는 뉴욕교협 건물은 뉴욕교협측이 150만 달러를 희망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 수준에서 건물 매입



황영진 회장이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화 초청 후원의 밤 · 선교바자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EFAH, 회장 황영진 목사)가 8월 중 후원의 밤과 선교바자회를 통해 콜롬비아 아동선교센터 후원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3일(금)에는 탤런트 김정화 한국 기아대책 홍보대사 초청 후원의 밤을 갖는다. 동 기구는 지난 18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가진 7월 월례모임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정화 초청 후원의 밤: 8월 3일(금) 오후 7시 뉴욕낙원장로교회(구 새천년교회) △오병이어 발간: 원고마감 7월말 △선교바자회: 8월 25일(토) 오전 10시-오후 8시 뉴욕평화교회 플러싱 선교관 △콜롬비아 아동선교센터 방문: 9월 17일-20일 △아동후원 배가 운동: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아동 1

명 후원 △홈페이지 홍보 △새 이사장 및 이사 영입: 김종덕 이사장 사임 △8월9일부터 시애틀에서 열리는 전 미주지역 기아대책에 홍보철 목사 파송. 이외에 임원들의 많은 참석을 위해 8월 월례회부터 모임시간을 오전 8시30분에서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회장 황영진 목사는 "EFAH는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선교구제단체"임을 강조하며 "이 단계 하나만으로도 모든 선교를 다 할 수 있다. 전 세계 선교지가 다 연결돼 있다"고 말하고 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 경건회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임병남 목사, 말씀 이종선 목사, 합심기도, 축도 유상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3면에서 계속) 즉 중도성향 싱크탱크 '제3의 길'의 맷 베넷 설립자는 "끔찍한 진실이긴 하지만 극장이 있던 관객 12명이 총을 맞았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한편 제임스 케네디 박사에 의해 설립된 라디오 방송 "변화의 진리" 진행자이자 역사학자인 제리 뉴콤비(Jerry Newcombe)는 '카리스마' 매거진에 기고한 글(A Dark Night Indeed: Trying to Make Sense Out of Another Senseless Act of

Violence)을 통해, 도저히 말도 안되는 영화 같은 비극에 사는 미국 사회가 바로 "암흑의 밤"에 빠져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한마디로, 제임스 홉스와 같은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응축된 스트레스를 배출하지 못해 '잔뜩 옹크린 미국인'이 무차별로 총질을 해도 그만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

이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폭력으로 해소해나가는 그런 '어두운 밤'에 미국인들은 살고 있다. 그리고 무고한 미국인들이 또 언제 그런 처지가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할 세상이다. 그래서 극장 난사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섬뜩한 경고로 다가오는 것이다. 뉴콤비는 미국 건국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보상과 처벌'이라는 원리가 존재했다고 밝힌다: △1786년, 건국자 중 한 사람인 벤

자민 러쉬(B. Rush)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해주고, 보상과 처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썼고 △1828년에 출간된 웹스터 사전(1판)에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종교는 보상과 처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인간의 책임이다 △1864년 매릴랜드 주 헌법이나 1778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1796년 테네시 주 헌법에는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은 반드시 보상과 처벌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결론으로, 처벌이 주어지는 지옥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진리가 옹호됐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점점 더 기도와 성경을 학교에서 축출하고, 공적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말하는 것조차도 금지시켰다. 따라서 누군가가 또 다시 좌절하고 소외당했다고 해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살상할 때,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게 된 '어두운 밤'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죄와 형벌 그리고 지옥이 미국 사회

에서 사라지자, 교회 강단에서도 점점 더 부드러운(soft) 설교로 교인들의 귀를 병들게 했다. 죄와 지옥이라는 단어가 거북하며 기피하고 싶은 주제가 돼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강단도 책임이 있다. 플로라도 극장 총격사건은 그래서 정치, 사회 그리고 교회까지도 세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자성과 회개의 사건으로 승화해야 한다. 정치권의 총기규제 논쟁보다는 마음과 영혼의 효과적인 개혁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석돼야 하지 않을까?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3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중언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3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매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2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2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 | | |
|---------------------------|-----------------|--------------|------------|
| 둘출(표지) | 3.5cm × 4.5cm | \$600.00 | |
| 전면광고 | 17cm × 24.5cm | 표지내면(2면, 3면) | \$3,000.00 |
| | | Back 면 | \$3,500.00 |
| | | Back 면 내면 | \$2,500.00 |
| | | Inside | \$2,200.00 |
| *전면광고의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서 | | | |
| 전면책배 | 15.5cm × 23.5cm | \$1,000.00 | |
| 전면 1/2 | 15.5cm × 5.8cm | \$600.00 | |
| 전면 1/4 | 15.5cm × 5.8cm | \$350.00 | |
| | 7.7cm × 11.7cm | | |
| 전면 1/8 | 15.5 × 2.8cm | \$250.00 | |
| | 7.7cm × 5.8cm | | |
| 둘출 Listing | Listing size | \$100.00 | |
| 속하광고(사진삽입) | 3.7cm × 7.5cm | \$200.00 | |

| | | |
|---------------|----------------|-----------------------------|
| 무 로 리 슥 신 청 서 | ① 교회(기관)이름 | 한글 : _____ 영문 : _____ |
| | ② 교회(기관)주소 | _____ |
| | ③ 교회전화 & 팩스 | Tel.() _____ Fax.() _____ |
|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 한글 : _____ 영문 : _____ |
| | ⑤ 사택주소 | _____ |
| | ⑥ 사택전화 & 팩스 | Tel.() _____ Fax.() _____ |
| | ⑦ E-mail Add. | _____ |
| | ⑧ Web Add. | _____ |
| |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_____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시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8,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이단 신천지, 물밀작업에서 수면위로

구, 수정교회에서 집회...한인교계 대규모 반대시위 벌여

한국 기독교계가 대표적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성전(이하 신천지, 대표 이만희) 집회가 21일 오전 10시30분 구 수정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집회장 입구는 건장한 체격의 주차요원(한인)들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초청을 받은 이들만의 입장을 허락했고 특별히 한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오렌지카운티 교협과 목사회, 남가주 교협과 목사회를 비롯한 10여개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선포하고 당일 오전 10시 집회장 입구에 모여 반대시위를 벌였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은혜한인교회



신천지집회 반대 시위대원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 한기홍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있다.

한기홍 목사는 "이제 신천지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동안은

물밀작업으로 비밀리에 포교작업을 했다면 이제 공공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에 교계에서는 더욱 이단퇴치를 위한 방안을 세우고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남가주교협 임원인 이정현 목사는 "뉴욕과 LA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 미주 지역에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하려는 것이다. 온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

해 나가고 특히 개 교회와 목회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 빠른 시일에 교계 대표들이 모여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표했다.

'신천지 아웃', '신천지는 이단이다' 등의 피켓을 든 100여명의 한인 시위대 속에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량에 전단지들을 돌리는 현지인 부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친구가 성경공부를 하려고 해서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신천지였다. 그 모임을 몇 개월 참석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성경내용과 달랐고 그 모임에 대해 가족,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내 행동을 부모님이 이상히 여겨 알게 되었고 신천지를 탈퇴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자신이 느낀 것을 전단지로 만들어 아버지 와 함께 배포하고 있었다.

이날 집회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것이나 상당수의 한인들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행사 순서에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로 준비된 섹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뉴욕에서 집회 개최 사실을 접하고도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모인 시위대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통성기도 한 후 자리를 떴다.

(이성자 기자)



세계비전교회 1대 김재연목사(왼쪽 두번째)와 2대 김영빈목사가 기념촬영.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라!” 세계비전교회 김영빈 목사 취임감사예배

세계비전교회가 김영빈 목사를 청빙하고 지난 22일 오후 5시 제 2대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1대 담임 김재연 목사(칼빈대학교 총장)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 한인장로교회) 기도,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와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의 권면, 김재연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합시다”(사 54:1-3)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재연 목사는 “25년 전 눈물의 기도로 시작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대한 성전을 갖게 됐다. 어려운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축복으로 2대 담임목사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장막터를 넓히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기 바라고 이 일에 기쁘게 함께 하는 교인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박희민 목사는 “세계비전교회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아 1세대와 2세대 대를 위한 2대 담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와 순종하는 교인들이 되고 서로 사랑 안에서 담임목사를 잘 섬겨 교회 이음처럼 세계에 비전을 알리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교회를 향해 권면했다.

또한 손인식 목사는 “베델한인교회에서 3년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이교회에 부임했다. 교회를 위해 인내하며 잘 참는 목회자가 돼주고 교

회 부흥을 위해 기도와 말씀이 항상 준비되는 목회자가 되어 최선을 다하라”고 김영빈 목사에게 권면했다.

이어서 심태섭 목사, Pastor Frank Nuno, 박형은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교회가 준비한 만찬을 가졌다.

김영빈 목사는 중학교 2학년 때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난 1.5세로 현지에서 중교를 다녔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재이주했다.

이후 뉴욕의 나약칼리지에서 신학과 청소년사역을 전공했으며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학사(M.Div)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동부 지역에서 EM 사역을 담당했고 남가주사랑의교회와 베델한인교회에서 부목사를 역임했다. 김 목사는 영어는 물론, 스페니시와 한국어가 능통하며 '선교지향적인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교회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회비전으로 삼고 있다.

한편 1대 김재연 목사는 오는 11월, 교회설립 25주년을 기해 세계비전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될 계획이다.

(이성자 기자)



기독교회관건립기금마련을 위한 성가대합창제에 동참한 참석자들과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김영빈목사

기독교회관건립 기금마련 성가대합창제

남가주목사회 주최, 10개 찬양단 참여

남가주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기독교회관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성가대합창제'를 개최했다. 22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린 성가대 합창제에는 10개의 합창단이 참석했으며 카리모스 미션위시 팀의 울동 특별순서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보여주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영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독교회관 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찬양제에 출연한 합창단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앞으로도 회관건립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감사와

협력에 당부했다.

합창제에 앞서 이우형 목사(남가주목사회 수석부회장) 사회로 드린 예배는 기도 황성철 장로, 말씀 고석찬 목사(찬양의 능력)/역대하 20:22, 인사말씀 김영대 목사, 광명 허귀암 목사, 축도 김사무엘 목사가 맡았으며 전종재 교수가 합창제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합창단은 조이폴션 교중창단, 코랄레움선교합창단, LA 남성선교합창단, 아이노스여성중창단(웨스트힐장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캘리포니아메스터코랄, 이화보컬앙상블, 극동성가단, 레위남성성가단, 은혜한인교회 등이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개척교회 설립지원 설명회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교회 확장국이 개척교회 설립에 관심과 열정을 가졌거나 독립교회, 교회건물 구입 용자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회를 8월 6일(월) 정오부터 3시까지 JJ그랜드 호텔에서 갖는다. 좌석 관례로 8월4일까지 예약해야 한다. (참가비 없음)

▲문의: (847)987-8784

월넛크릭하나교회 설립 1주년 예배

월넛크릭하나교회(담임 김현진 목사) 설립1주년기념 감사예배가 8월 5일(주) 오후 5시 월넛크릭 시립도서관(1644 North Broadway, Walnut Creek, CA 94596)에서 드려진다. 김현진 담임목사는 세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해오다 지난해 8월 7일 월넛크릭하나교회를 설립했다. www.heavenlychurch.com

▲문의: (925)988-9136

홀리스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홀리스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희망의 선율'이 오는 31일(화) 저녁 7시30분 월넛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LA 한국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한국임양홍보회가 주최하고 월넛미선대학교와 LA총영사관이 특별 후원하는 본 음악회는 윤임상 씨가 지휘를 맡는다.

▲문의: (213)500-9345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하나로커뮤니티교회가 양성필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8월 5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취임감사예배에 앞서 7월 29일(주)에는 특별찬양예배로 2012 독일퀵렌한빛찬양대의 특별연주가 있으며 8월 6일부터 18일까지는 백투스쿨(Back to School) 특별기도회로 월-금 오후 8시-9시15분, 토요일 오전 6시-7시까지 진행된다.

▲문의: (626)912-6600

나눔선교회 마약 퇴치 예방 캠페인

마약, 도박, 알코올, 청소년 탈선문제를 상담 치료하는 재활기관인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목사, 1927 James M Wood Blvd)에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마약 퇴치 및 예방 캠페인과 약물남용 및 중독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문의: (213)389-9912, (213)389-5383(팩스)



연합 VBS를 마치고 즐거워 하는 어린이들.

“캠페인을 찾아 떠나는 대모험” 남가주지역 5개 교회 연합 VBS 개최

남가주지역 5개 교회 어린이들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캠페인을 찾아 떠나는 대모험” 이란 주제로 창대교회(담임 이준준 목사)에서 연합 어린이 VBS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으로 2박3일 동안 교회를 초월해 타 교회 어린이들과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으며 각 교회 교역자들에게도 좋

은 네트워킹의 기회가 됐다. 연합으로 VBS를 가진 교회는 버뱅크의 한마음제자교회(담임 광부환 목사), LA 새일교회(담임 정병노 목사),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 샌버나디노장대교회(담임 이준준 목사), 빅토빌에수마음교회(담임 김성일 목사)다. (정리: 이성자 기자)

순복음 복미수호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 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2년 본 총회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교회육성과 선교와 상호협력 그리고 목회 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임명(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 안수
① M.A, M.Div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② B.A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구약성경 ②신약성경 ③조직신학 ④교회사 ⑤헌법
- 2) 논문 : 에베소서 6장 12절
- 3) 설교 : 자율적으로 1편 제출(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소정양식)
- 4) 혼인(결혼) 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 5)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6)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7)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8)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9)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 10) 고시비 \$500.00 (숙식은 각자 부담)

4. 제출기간 및 필기고시의 면접 일정

- 1) 제출기간 : 2012년 8월 10일까지
- 2) 고시 및 면접 : 2012년 8월 20일 오후 1시
- 3) 고시 장소 : 92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총회사무실 : 714-576-0155 / 총회총무: 석종규 목사: 714-318-9528

순복음 수호총회

총회장 이자용 목사

고시위원장 김두경 목사

감리교단 정상화 5부 능선 넘었다

총회실행부위, "입법의회 모든 것 임시감독회장에 위임"

[CBS]감리교단 정상화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감리교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지난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 입법의회 일정과 장소 등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교단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에 의해 감독회장 선거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입법의회 일정이 확정될 경우 혼란이 예상됐었기 때문이다. 이제 임시감독회장에 입법의회

일정에 대한 전권이 부여된 만큼 혼선을 피하고 감독회장 선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김국도 목사측은 회의에서 입법의회를 열어 선거법을 개정할 뒤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행 4년으로 돼있는 감독회장 임기가 줄어들지 않는 한,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풀이된다.

총북연회 박선주 목사는 "입법의회에서 완전히 법을 고쳐서 선거를 치르자"며, "다만 낱씨는 정하지 말고 바뀐 법에 의해 감독도 선출하고 감독회장도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정후보가 선거에 나서는 것을 돕기 위한 입법의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았다.

동부연회 권오현 감독은 "왜 굳이 29회에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29회에서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9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의도

가 담겨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교단 정상화를 위해 입법의회 보다는 선거를 진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서 계과 간 후보등록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 18일에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일정에 대해 입법의회에 인준을 받을 필요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담도 덜게 됐다.

현재, 감독회장 선거를 준비 중인 후보는 모두 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말인 후보자 등록마감까지 후보자들 간의 단일화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금횡령·성추행 이제 그만!"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움직임 본격화

[미션라이프] 목회자들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부도덕한 목회자들의 재정비리나 성추문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받고 성도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목회자들 스스로 주의하고 경계하자는 취지다.

예장 합동 신학부는 다음주 임원회의에서 '목회자윤리강령안'을 확정, 오는 9월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8일 밝혔다. 신학부는 이날 초개최한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권성수 대구 동신교회 목사와 이상원 총신대 교수가 각각 제안한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상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근감을 유발하는 교인과 신체적 접촉 '상담' 등 목회적 돌봄 과정에서 획득한 성도 개인의 정보를 설교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 등을 절대 금해야 할 행위로 꼽았다. 또 '은퇴 목사는 후임목사의 초청 없이 교인과 접촉하거나 예배 인도 등 목회업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재정관리는 평신도 직분자에게 일임하고 목회자가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경우 철저하게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도 이르면 다음달쯤 윤리강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목협의 윤리강령은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윤영위 등 내부 논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새 찬송가 곡 선정 마무리...5백20여 곡

[CBS]새로운 찬송가에 실릴 곡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교회 주요 10개교단과 대한기독교서회는 최근 제주에서 3박 4일간 찬송가 감수회의를 갖고 새 찬

송가에 들어갈 5백 20곡 선정을 마무리했다. 새 찬송가에 들어갈 5백20여 곡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곡들로, 과거에 출간됐던 통일찬송가를 비

롯해 새찬송가, 개편찬송가에서 곡을 선정했다. 새로운 찬송가 발간은 그동안 새 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에서 각각 파송된4인의 편집위원과 기독교서회를 중심으로 찬송가 제작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사용중인 21세기 찬송가는 일부 곡의 저작권 문제 발생과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사유화에 따른 법적다툼 때문에 주요 10개 교단들이 뜻을 모아 새 찬송가 발간을 추진해 온 것이다.

제7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 선정

전병금 목사·안준배 목사·장헌일 장로

한국기독교복음단체인총연합(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교회일치위원회(위원장 오범열 목사)가 제7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대외부문 전병금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대내부문 안준배 목사(세계성령중양협의회 이사장), 평신도부문 장헌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

총장)이다. 전병금 목사는 공적 삶을 보수와 진보교회가 하나되는 한국교회 일치추진에 공헌했다.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도 연합과 일치에 신학적 실천을 하고 있기에 선정됐다.

안준배 목사는 세계성령중양협의회에서 23년 동안 성령운동을 통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장을 확정한 92세계성령대회대표, 97민족

복음화대회, 2007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회, 2010천만인성령대회의 주도적 사역을 했다. 기독교문화예술원의 사역을 통해 문화예술과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문화예술적 일치와 한국기독교복음단체인총연합을 통해 교계연합조직의 일치운동을 전개했다.

장헌일 장로는 대한민국 의회, 법조, 행정기관과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공적 사역을 했다.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의 설립과 발전에 사무총장으로서 한국교회와 한국정계와 하나되는 연합과 일치에 기여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9월 6일(목) 오후7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세미나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향한 제안"과 함께 열린다. (기사제공: 한복총)

JMS 교주비리고발 탈퇴자 보복폭행

신도 4명에 징역 1년-1년6월

교주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보복 테러를 가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9일 JMS에서 탈퇴한 뒤 교주였던 정병석의 비리를 고발한 김모씨를 쇠파이프로 집단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으로 기소된 JMS 신도 민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씨 등이 JMS를 탈퇴하고 반JMS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이들을 보복하고, 쇠파이프로 공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이들을 자신이 속한 종교집단인 JMS와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모해 집단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씨 등은 2003

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JMS를 탈퇴하고 '엑스터시'라는 단체를 결성해 교주 정씨의 각종 비리를 폭로한 김모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뒤 잡적했다. 이들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홍릉으로 도피한 정씨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과정에 김씨가 도움을 준 사실을 알고 김씨를 며칠 동안 미행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보복테러를 공모했다.

검찰은 민씨 등을 검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권석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씨는 지난 3월 JMS 상부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하고, JMS를 탈퇴했다. 교주 정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단군상 전국에 369개
예정합신 단상상 대책위

[CBS]전국에 세워진 단군상은

모두 3백 69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합신총회 단상상 문제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81곳을 비롯해 초중교와 공공기관 등에 세워진 단군상이 모두 3백 6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신총회 단상상 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단군상이 무차별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국교회가 연합해 단군상 철거를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상상 대책위원회는 특히 "현재 이승헌 집안이 운영 중인 홍익공동체의 계열사는 단원대를 비롯해 108개에 달한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실체를 알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경찰청 경찰쇄신위원회에도 단원대 관련인사 3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며 경찰쇄신위의 위촉철회를 촉구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종교편향 대책

[미션라이프]주요 대선 주자들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과 불교계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펼친 종교편향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종교편향을 막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정교분리 위배나 종교편향 소지가 높은 불교 예산지원은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편향 대책 종자연 논리 답습=종교편향과 관련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대선 후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다. 그는 불교계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종교 편향적인 인사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공직 인사단계를부터

연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종교차별금지법 신설과 종교차별 논리가 종자연과 불교계가 2005년부터 기독교의 신앙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온 이슈라는 데 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종교편향 논리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불교의 피해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종교차별금지법 신설과 종교차별 논리가 종자연과 불교계가 2005년부터 기독교의 신앙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온 이슈라는 데 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종교편향 논리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불교의 피해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종교차별금지법 신설과 종교차별 논리가 종자연과 불교계가 2005년부터 기독교의 신앙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온 이슈라는 데 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종교편향 논리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불교의 피해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종교차별금지법 신설과 종교차별 논리가 종자연과 불교계가 2005년부터 기독교의 신앙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온 이슈라는 데 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종교편향 논리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불교의 피해의

종교차별 막겠다고 "불교지원은 더 확대" 공언

종교적 중립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당 상임고문도 "정부는 종교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당당 상임고문은 지방의 한 사찰에서 "종교편향 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종교편향을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종교편향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현재의 범조항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종교편향과 관

시과 개종이 자신의 종단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위기의식에 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종교차별에 따른 기본권 침해 구제는 헌법소원과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종교평화법 등 범조항 신설을 노린 것은 기독교 선교를 막고 공직자의 신앙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 막고 불교예산은 지원 하겠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종교편향 논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정략적인 종교편향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정교분리 위배 소지가 짙은 불교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후보는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사업까지 약속했다. 헌법상 공공복리와 같은 세속적인

목적이 아닌 포교를 목적으로 공권력과 종교가 유착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위배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 전용태 변호사는 "대선 후보들은 종교편향 주장이나 종교차별금지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것이 종교의 자유와 평등,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불교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되면 비신자와 타 종교인 입장에서 종교차별을 주장하게 되고 오히려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바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영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집회초대, 집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영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찬양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영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중언자료
- 교회예배 따른 오늘의 기도과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 결제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
Korea Church Data Center

홈페이지 - www.kcdc.net
이메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선교지소식

역라마단 기도회 시작



지난 20일 시작된 무슬림 라마단(금식)으로 기독교에서도 무슬림을 위한 역라마단 기도회를 국제적으로...

한국내에서는 예수전도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한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30prayer.org/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1992년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중동에 모여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가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다.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전체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2012년 라마단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제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약 15억의 무슬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것이다.

영국교회 해외선교사 받아들여야 할 지경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영국복음주의연맹이 영국 기독교인 1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결과이다. 이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영국에 해외선교사들을 통한 복음전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

반면 영국교회의 해외선교사역에 대해서는 90%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브라질, 개신교회 비약적 성장세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가톨릭국가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개신교의 교세도 만만치 않다. 최근 브라질 국립통계원은 카톨릭 신자의 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개신교인들은 늘어났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2330만 명으로 4천만 명에 불과한 개신교 인구보다는 월등히 많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하면 170만 명 줄어든 수치이다. 반면 개신교 신자는 2000년의 1,610만 명에서 4,23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란, 기독교 개종경력 이유로 창업 봉쇄

이란 당국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에게 그 과거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로 인해 배교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창업을 막았다.

그는 등록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했으나 경찰이 혁명공화국법정에 그의 전과 기록을 보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떻게 학교에 붙어 있다고 해도 정규 학과과정에서 교과목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시험까지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을 위한 파르시어 학교는 전혀 없다.

유럽에 해적당 출현

유럽에 해적당이라는 정당이 출현했다. 2006년 스웨덴에서 처음 창당된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브라질 등 40개국에서 창당됐고, 독일에서는 지난 해와 올해 여겨져서 열린 각주별 선거에서 7-9%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미 주의회에서는 원내 진출에 성공한 정당이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약 8%의 전국지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있을 총선거에서는 연방의회 진출의 가능성이 분명해 보인다.

해적당의 시작은 인터넷에서 음원이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굳이 저작권을 따져서 돈을 내고 다운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반발한 컴퓨터 도사급 젊은 이들 몇 명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을 온라인으로 규합하여 세력화하는데서 출발했다.



인터뷰

이필찬 목사(요한계시록연구소 소장)

요한계시록으로 교회세우기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세우나 하는데 매우 유익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해석 역시 사복음서나 바울서신 등 성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시록에 대한 궁금증을 교회에서 풀지 못하거나 외부에서 행해지는 계시록 강좌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계시록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진 집단은 신천지나 여호와의증인 등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기존교회들은 계시록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거나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2006년부터 미주지역을 방문, 집회와 특강을 인도해온 이필찬 교수는 이곳 미주 땅에서 받았던 한인교회들의 인상은 정보인 플레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시록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진 집단은 신천지나 여호와의증인 등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기존교회들은 계시록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거나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알 수도 없는데 그것을 이슈화시켜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언어의 고리들을 잡아 베리칩 이슈를 만드는 건 성경해석의 ABC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계시록은 사도요한이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냐? 로마제국이나? 하나님이나? 이 이슈를 가지고 다루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를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자로 승리하고 나아가라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라고 설명하며 베리칩 이슈는 이러한 계시록의 핵심을 가리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계시록에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사탄은 패배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케겔별 상태를 보고 사탄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베리칩 문제를 이슈화해 그것이 666이니 받으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런 666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등으로 논쟁을 벌이는 건 매우 답답한 것이며 소모적인 것입니다. 즉 본질적인 부분을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베리칩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충실... 베리칩은 비본질 성경공부는 교회 내에서... 바른 신학 토대위에

회자와 신학자들의 방명이 자주 있다 보니 여러 신학적 사상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혼란스러움이 많은 듯합니다.”

그가 지적한 혼란스러움은 계시록에 대한 교회들의 해석에도 고스란히 심어져서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계시록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위한 방향으로 해석돼야 하는데 그 반대로 흐르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교회들의 해석은 매우 선정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기존교회의 전통 속에서 조화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만듭니다. 이는 계시록을 체험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교회 내에서는 계시록에 대한 가르침이 빈약하며 교인들 역시

할뿐더러 더욱 왕성해지는 이단들의 행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성도들에게 계시록 강좌를 비롯해 올바른 성경교육을 통해 종말론, 교회론, 세계관 등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찬 교수는 미주지역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라고 밝히며 실제로 자신도 그 갈급함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전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베리칩 논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계시록은 서신이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서신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고 그 둘 사이에 주고받은 언어적 코드를 이해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계시록을 21세기인 오늘날의 우리들의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고 해석하려다 보니 베리칩 이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요한과 수신자인 7교회 성도사이에 베리칩은 이슈가 아니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호도하는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들이 좀 더 성경에 대해 바르게 접근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이 책상에서 본분과 씨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말씀에서 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찬 목사는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미시건 칼빈신학교(Th.M), 스코틀랜드 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리처드 보콧 박사의 지도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제목의 논문으로 Ph.D를 취득했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은 독일 튀빙겐의 Mohr Siebeck에서 2001년 출판되기도 했다. 현재 이필찬요한계시록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분당지구총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가족사항으로는 부인과 볼티모어 MICA(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칼리지 오브 아트)에 재학 중인 딸과 미시건 그랜드래피즈의 고등학교 10학년인 아들 둘이 있다. <박준호 기자>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해경/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간담한 연결하여 새롭게 풀릴 수 있도록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원 구입시 \$25 each

음악 새로 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진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E7 미가엘 반주기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원용액 가짜를 연주 -본체 고정할 스탠드 -USB 호스트 가능 -SD카드 사용 -터치스크린 방식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미중등부 지사 학력 특별세일 헬리싱구사 에어드수정강대상 EH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최신 LED수정강대상(합판) 지명상품인제 선명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088, 089, 090 (213)447-4011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12)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현명한 아내가 되는 법

교사로서 월급을 받은 28년간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돈을 써본 적이 없다. 월급을 타면 항상 저금통에 넣고 생활비와 기타 잡비는 반드시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타서 썼다. 한국에서는 남편이 월급봉투를 받아 아내에 주고 용돈을 타 쓰는데 우리 집은 반대다.

어떻게 앞을 못 보는 남편이 돈관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순진한 아내는 돈과 관련된 기록을 남편에게 하나하나 다 읽어준다. 나중에 현금 100달러가 없었다면 누가 믿거나 할까. 더구나 맹인 남편에게 전부 맡겼다고 하면 모두가 신기해한다. 나는 원래 돈 육심이 없었고 남편이 가정을 위해 저축하고 자녀양육비로 쓰자니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두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엄마로서 내 마음대로 선물도 사주고 준비도 해주고 싶었는데 일일이 남편에게 보고하고 허락 받아야 하니 참으로 불편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2년간 내 월급을 생활비에 넣고 개인 통장에 넣고 쓰겠다고 제안했다. 남편은 심하게 반대했다. 기분이 상해서 "내가 세 살배기 아이인가?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부부싸움을 하고는 처음으로 내 고집을 밀고 나갔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두 며느리의 진주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세트, 6명의 한복을 한국에서 주문했다.

두 아들의 예복도 사주었다. 결혼식 후 시내를 한 바퀴 도는 특별택시도 대절해주고, 결혼식 전에 온 가족이 모여 다양한 분위기로 가족사진도 찍었다. 작은 아들 결혼식 후에는 우리 내외의 유럽관광 티켓비를 내가 지불했다. 결혼생활을 통틀어 처음으로 5만 달러에 이르는 많은 돈을 써냈다. 요즘은 매달 받는 은퇴금과 사회보장금을 생활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남편과 협의해서 지금은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다.

39년 동안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가계에 관한 이야기나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다고 묻는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으며 여성으로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해냈다는 것에 큰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다.

열 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늘 성경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여성, 아내들에게 지침이 되는 글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도 두 며느리에게 이 글들을 읽어주며 잘 따라라고 이야기해 주곤 한다.

잠14:1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

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21:9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12: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씌움 같게 하느니라"

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지침을 성경에서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주셨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지으셨고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영향을 끼칠 힘을 주셨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지만 그 머린의 조상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내이다. 인류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탄의 거짓말 중 어느 것을 따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잠언 31장 28-29절의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자식과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인이 될 것이다.

'돕는 배필'이란 영어로 표현하면 'suitable helper'이다.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의 역할이 없으면 남자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돕는 배필로서 여

자의 역할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남자의 역할이 완성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하실 때 여자로서 먼저 지으셨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아내가 되었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되었다. 이 순서는 평범한 듯 하지만 참으로 중요하다. 많은 여성이 어머니의 역할에 치중한 나머지 여자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역할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남자가 함께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영적으로 동등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기능상, 역할상 여자에게는 순복해야 함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내는 순복하되 동격의 위치에서 자신의 의견을 남편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후에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지 순복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아내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다음호에 계속)



'여성조선' 표지 사진으로 실린 석은옥 여사

우간다



선교지 편지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저희 우간다 선교를 위해 중보기도와 재정지원, 그리고 사랑의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진땀 흘린 사역과 기도제목들을 드리오니 지속적인 사랑과 중보기도를 부탁 올립니다.

게 자립심을 기르고자 제공한 염소 1마리가 이제 소로 바꾸고 염소가 몇 마리씩 되는 아이들도 몇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교복, 학용품, 조금의 양식, 생필품, 성경캠프, 수학여행 및 견학, 소풍, 레크리에이션, 가정방문, 신앙훈련과 상담 등입니다. 이들에게 학비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 지난 건기(11월-3월) 동안, 쿠미, 응오라, 소로티, 부케데아 디스트릭트(도) 내의 10개 지역에서 야외전도 집회와 아테스로 더빙 된 "Jesus" 영화 상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위해 온천교회에서 엠프 시스템을 지원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비전 아이들(고아 52명)의 지원은 계속되며 지난 방학기간(1월, 5월) 성경캠프를 통하여 아이들이 말씀공부를 하며 뉘를 감사드리며, 처음 만났을 때에 코흘리개들이 이제 4명만이 초등 3학년이고 나머지는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으로 자랐습니다. 감사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님들의 간구를 들어 주셔서 사형수인 비트리스의 어머니가 사형을 사면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각 아이들에

게 자립심을 기르고자 제공한 염소 1마리가 이제 소로 바꾸고 염소가 몇 마리씩 되는 아이들도 몇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교복, 학용품, 조금의 양식, 생필품, 성경캠프, 수학여행 및 견학, 소풍, 레크리에이션, 가정방문, 신앙훈련과 상담 등입니다. 이들에게 학비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 코프교회의 교인들과 코프초등학교(전교생 798명) 3학년-7학년의 전체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에 예배와 성경공부(교인과 학생 별도의 시간)를 합니다. 학교 내에 예배당 건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실감하며 너무 감사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읽기와 전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귀신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와 회심이 되어 교회에 출석하는가 하면, 마을에서 날마다 벌어지던 술판이 사라지는 등 감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초등학교 내에 교회당 건축을 원하시는 교

회는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예배당 건축은: 이번에도 오대텐 교회당의 지붕공사를 사랑선교회에서 후원을 약속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티사이섬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내 고 선교사가 진행하는 "Who made world?" 프로그램으로 Children's Church가 성장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 바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의 은혜로 동부아프리카지도자개발원(LDIFA) NGO 등록증과 저희의 Work permit(지역비자)를 받았으며, 지난 5월 방문하신 사랑선교회 이기주 목사님의 인도로 사무실 개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설 "교회지도자훈련센터" 건립을 위하여 시의 호텔을 리스형식으로 제공받는 문제를 소로티시 의회와 협의 중이며, TEE 제자반의 학생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부아프리카대학교(과학기술/EAUST)는 현지인 동역자께서 소로티시의 좋은 위치에 땅(대학부지)을 기증할 의사를 표하여, 여러 가지 절차 등을 협의 중이지만 난제가 많으므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지난 2월에 "우사모"가 창립되어 김승철 장로님(울산한빛교회)께서 수고해주시며 "아프리카 나눔과 교육(재단)" 설립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동역교회와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상철 고구덕 선교사 올림 lsc9366@hanmail.net/ lsc3737@gmail.com/다음카페: "러브이심철선교사"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 | | | | | | |
|---|---|---|--|--|---|--|
|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7797, FAX: (02)323-823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1-8794-6, FAX: (02)121-8794-6 군포시 길동로 379-10호 |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15-215 |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김포시 남양로 201번지 |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4: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명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승문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희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8: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 안곡교회 담임목사: 서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장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장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서서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8: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4222-1, FAX: (02)323-422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25 |

가정사역 칼럼



행복한 결혼방식(2) -잘못된 눈(이마고 이론·하)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4. 적응력과 융통성이 있는가.

20여 년 넘도록 전혀 다른 가정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상당한 문화의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결혼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융통성 없이 자신의 삶의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잘 꾸려나가지 못합니다.

5.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나 중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때 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랑과 호의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6. 동정 또는 동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상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바람,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에 동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이 느끼고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거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7. 안정감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해 주고, 그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이나 처리되지 못한 분노 등이 있으면 안정감이 결여됩니다.

8. 두 사람이 좋은 면에서 비슷한 점들이 많은가

이성적인 사랑을 통해 서로에게 호기심을 갖고 접근한 후에는 우정적인 사랑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점들을 발견할 때 서로의 친밀감을 더해줍니다. 비슷한 점들을 많이 공유하는 부부는 굳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를 창조적이

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 비슷한 가정배경을 갖고 있는가?

연애하는 동안에는 가족들의 문제가 그리 크게 여겨지지 않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 다른 가족 문화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가치관, 경제 생활에 대한 태도, 가족행사 등)

10. 연령과 건강

육체적인 연령은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인격적 성숙도입니다. 연령은 현재로서는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연하의 남성도 결혼하여 잘 살고있는 부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성이 가정에서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여성이 남성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가정의 행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여러 가지 참고 될 만한 조건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위의 기준이 다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포기 할 수 없는 기준 몇 가지 외에는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 기도를 해야겠지요. 언젠가 서울 모 교회 청년회에서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자 한 자매가 일어나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위해 몇 년 동안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감에 대한 리스트를 세세하게 적어서 성실하게 기도했죠. 배우자에 대해 원하는 항목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기도가 버려진 바로 그런 형제가 제게 청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너무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형제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면 그 격에 맞는 배우자감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또 성경을 보면 찬송을 통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탄축 사울이 상쾌해졌다(삼상16:15-16, 23). 찬송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낫기도 하였다. 또 찬송하는 자의 마음은 즐거워지고(시105:3) 두려움이 사라진다(시56:4). 현대의학에서 어떤 의학자들은 모든 병의 원인 중 60-70%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말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송하자,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끝>

성경과 찬송음악

(7면에서 계속)

그냥 숨 쉬며 사는 것보다 찬송하는 사람의 몸속은 찬송음악으로 울려지며 운동하는 일이 있게 된다. 성악하는 사람의 몸을 보아도 본래 그 자체의 몸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악가는 몸집이 좋다고 말을 한다.

몸속의 기관들까지 운동을 하게 한다면, 건강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시 103:1)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복있는 자 (시33:1-22) 찬331장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성도의 복을 보여주는 본문은 복받은 자를 어떻게 설명할까? 첫째,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1).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삶에 적용할 때 영혼이 밝아지고 소망에 넘칩니다. 둘째, 자기 영혼으로 찬송하는 자입니다(2-3). 하나님을 좋아할 때 그

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께 찬송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영혼 속에서부터 찬송을 하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구원하심을 누리는 자입니다(5-19). 그 노래에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곤경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제입니다. 복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화 히스기야의 경건 (사38:1-8) 찬349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 히스기야는 어떻게 경건했습니까? 첫째, 절망 속에 참 기도를 드렸습니다. 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리라는 통점은 그의 중년의 삶을 절망적이게 했습니다. 그런 절대절망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며 소리내 부르짖었습니다. 고난이 참 기도를 가르쳐준 셈입니다. 둘째, 끝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도는 외식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드릴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

님 앞에 나아갈 때 때때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인격적 교제를 위해 진실 본위로 드린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합니다. 셋째,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을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15년 연장됐습니다. 그 후 무화과 열매를 종취에 붙일 때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회복이고 그 다음에 약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경건의 기도를 배웁시다.

수 히스기야의 기도 (사38:9-20) 찬482장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심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몸과 정신적 고통과 우울한 처지를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능력있는 기도는 자신의 사정을 가식없이 토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진실의 만남이 기도입니다. 둘째, 죄사함을 믿었습니다. 자기 행위를 그대로 아뢰는 히스기야는 자기 가 저지른 죄를 멀리 던지신 구원의 은혜를 주장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기도응답의 본질입니다. 무슨 응답이라도 먼저 죄사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

입니다. 셋째, 겸손한 삶을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소망과 비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가장 정상적인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가 발견한 겸손의 가치는 하나님나라 백성의 공통된 은혜이며 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확인하여 평강과 고요한 중에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목 재앙 속에 보인 소망 (렘16:1-22) 찬539장

유다 말기의 죄악을 심한 징계로 다루신 하나님은 참 소망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유다의 재앙은 심각했습니다(1-13). 하나님의 평강과 공화과 은혜의 손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독한 질병, 기근, 약탈당함으로 그 모양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주어진 의로운 징계였습니다. 이 의가 세워질 때 살 길이 생깁니다(13). 둘째, 그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14-15).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심보

다 더 차원 높은 방법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능력되심을 알게 했습니다(21).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요17:3). 자기백성에게 주시고자하는 영생은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집니다.

금 광야생활의 주인 (출17:1-7) 찬453장

고린도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한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달려있습니다. 만나와 생수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고전10장 참조) 첫째, 신령한 음식입니다. 만나는 매일의 경험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둘째, 신령한 음료입니다. 반석을 쳐 마신 생수 역시 그리스도에

게서 나오는 모든 은혜를 지칭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주께 나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요17:38-39). 셋째, 신령한 반석입니다. 신령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광야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한 생활을 힘쓰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 주인을 겸손하게 따라갑시다.

토 악인의 삶 (합3:17-19) 찬 399장

의인된 신자의 긴 여정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현실의 절망에 매이지 않습니다(17).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빈털터리 일지라도 현실의 절망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꽃을 보며 위를 쳐다봅니다. 둘째,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축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집착된 마음이 하나님만을 주축하는 일은 고난의 때에

배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숨을 때 평안이 있고 소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소망에 넘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더 나아가 사슴의 발로 높은 곳을 다니는 비전을 갖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부르짖는 예레미야는 전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았습니다(렘33:3). 현실의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기회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읍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사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본교 소개 및 특전

1. 174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호주 현지강의 안내

Aug 20-Aug 24 (8월 20 - 8월 24일)

DI 808 Discerning God's Will(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Stephen Park

Aug 27-Aug 31 (8월 27 - 8월 31일)

PM 853 Dynamics of Spiritual Growth(영적 성장의 원동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21세기 여성 지도력 기쁨 세미나

강사: 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일시: 8월 28일-29일
장소: 시드니 한우리 선교센터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674-372-6100 (Ext. 6336), 674-377-2619(한국어)

E-mail: ps@grace.edu, gskomestudies@gmail.com

인/터/뷰 나학수 목사 (광주겨자씨교회 담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의 은혜로 한결음, 한결음 왔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힘든 것 같이 보였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내고 보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집회 차 뉴욕을 방문한 나학수 목사(광주겨자씨교회 담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 만 의지”하는 “선교에 크게 관심을 갖고 사역하는 목회자”였다.

10여 년간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87년 9월 개척한 ‘광주겨자씨교회’ 이름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비유, 마태복음 17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나 목사 부부가 미약한 가운데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나학수 목사와 윤명순 사모

서는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한다는 법칙에 따라 어린 이집, 유치원을 통해 학교사역 즉 대안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건축 인가를 받고 현재 건축을 시작하려고 한다.

신학교 재학시절 결혼해 35년을 곁에서 내조해온 윤명순 사모는 남편의 장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모습”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인간적으로 장점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도 됩니다. 일단 밝으면(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나 목사는 타국에서 힘들게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목회는 한국이나 이민 목회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라고 가장 기본적인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선교에 올인한 목회자 “교회재정의 50% 선교비로 사용” 기도제목

상가 2층을 분양받아 개척할 때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한 교회지만 3년 만에 새 성전을 건축했으며 2003년에는 현재 교회당을 증축했다. 나 목사는 개척당시부터 교회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비로 떼어놓기로 결정했다. 그 서원은 지난 2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았으며 개척 3개월 때부터는 힘든 농촌교회 10곳을 선정해 후원을 시작했다. 그 ‘겨자씨’가 현재 국내외 147곳으로 늘었다.

개척 당시 부채로 시작한 탓에 집도 없이 교회 안에서 생활했다. 그래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었드렸다. “당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지요.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되는데 선교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로 심는다”는 원리를 터득한 셈이다. 광주겨자씨교회는 설립 후 현재까지 총 6번의 성전건축을 했다. 2번은 첨단겨자씨교회와 풍

암겨자씨교회로, 1년 남짓 나 목사가 직접 사역하다가 자립할 정도로 부흥하자 독립시켰다.

교회 재정의 30%를 선교비로 사용하는 광주겨자씨교회가 현재 사역중인 147곳 중에는 단독 파송지도 있고 협력 파송지도 있지만 특히 탄자니아와 인도, 필리핀, 태국, 중국 등은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5년 사이는 선교에 더 집중했다. 탄자니아에는 중등학교를 건축했으며 인도 빈민가에 7개 초등학교를 세웠다. 힌두교와 이슬람 등 타종교지에서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기독교학교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필리핀 빈민가 지역에 예배당, 학교 등 선교센터 건축하고 중국 길림성 조선족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 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나 목사의 견해다. 그보다는 신실한 선교

사를 찾아 그 사역을 도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훈련된 선교사를 후원해 사역하고 있다.

나 목사에게 목회철학에 대해 질문하자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압축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예배 중심의 목회를 강조한다.

물론 4, 5천명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진행한다. 새가족양육, 장애인선교, 호스피스, 중보기도, 므두셀라노인대학, 평신도 양육, 장학금 수여, 인터넷선교, 의료선교 등 이외에 6곳의 선교관이 있다.

또 광주겨자씨교회 특이한 점은 은퇴 목사들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은퇴목사님을 모시는 것”이었다고 나 목사는 설명한다. 광주겨자씨교회에는 현재 10명의 은퇴목사들이 출석하고 있다.

또한 복음전도의 미래를 위해

만 소망을 담은 답을 주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교회를 찾아 치유 받은 후 온 가족이 교회에 다녔다.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점진적으로 신앙을 갖게 된 나 목사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신학교(광신대)에 입학해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2남 1녀 자녀를 사역자로 키워 아들은 목사로, 딸은 사모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은퇴는 아직 10여년 남았지만 앞으로 더욱 선교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교회재정의 5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퇴 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써 주시면 어떤 일이든 해야죠.”

(유원정 기자)

본/사/방/문

이윤식 목사 (아르헨티나 로사리오한인교회)

목회는 섬김과 나눔...소외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하는 것



본사를 방문한 이윤식 목사 부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20km 떨어진 로사리오. 그곳에서 12년째 사역을 감당해 오고있는 이윤식 목사가 올해 고회를 맞아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들과 딸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두고 온 교회를 그리며 아르헨티나를 향해 출국을 서두르고 있었다.

“연말쯤 은퇴를 꿈꾸고 있지만 성도들이 좀 더 함께 하자는 의견이 있어 어찌될지 모르겠노라”고 말문을 여는 이윤식 목사가 로사리오의 소식을 들려준다.

“로사리오도 이제 도시화 되고 있지요. 예전엔 지주들이 기계로 수만 평의 땅에 농사를 지으며 그곳 인도자들을 반 농로처럼 일을 시켰는데 이제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수확 회사에 수확을 의뢰하니 일손이 필요 없게 되어 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로사리오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선교의 의미도 큼니다. 그곳에 현지인 교회 2개를 개척했지요. 담임 목사는 디모데목회자훈련원(현지인 훈련을 위한 선교센터)을 졸업한 토바족 주창 후에인데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사역이야기를 들려주는 그의 모습에는 교회의 나이를 느낄 수 없는 열정이 서려 있었다.

“일찍이 하나님의 일군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삶을 살다 늦게 부름을 받았기에 마지막까지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목사.

부에노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모의 도움으로 부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다며 사모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는 그는 “작은 교회지만 로사리오지역의 라디오방송, 교회 앞에 자리하고 있는 양로원, 디모데목회자 훈련원 등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평생을 사역에 헌신한 목회자들에 비하면 길지 않은 목회경력이지만 늦은 나이에 받은 사명이라 영혼에 대한 사랑이 크기만 하다. 그에게 목회철학을 물었다. “목회는 축복의 개념만이 아니지요. 일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하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목회는 섬김과 나눔이 아닙니까? 목회자는 대우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꿈을 안겨주며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요.”

대화를 마친 이 목사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헤어짐의 아쉬움 대신 또다시 만날 희망을 남기고 아르헨티나로 향했다.

(이성자 기자)



초청합니다

“개척교회 설립지원과 교회건물 용자 제공에 관한 설명회”

1803년 미국에서 태동한 주요교단인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교회확장국에서는 2020년까지 “1000개의 새교회를 1000개의 방법으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01년 20/20 비전 출범을 했는데 현재 700여개의 새교회를 세웠습니다. 금번 로스엔젤레스 인근 지역에 계신 목회자 중에서 개척교회 설립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과 독립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 교회건물 구입 용자등에 관심있는 여러분을 모시고 이에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오셔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교회 발전의 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8월 4일 (토)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설명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혹시 당일 참석하실 수 없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으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착순 접수를 받으오니 서둘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2년 8월 6일 (월) 정오 12시- 오후 3시까지
- 장 소: JJ Grand Hotel Conference Room (620 S. Harvard Blvd. LA, CA 90005)
- 대 상: 목사, 신학교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 독립교회 사역자
- 강 사: Gilberto Collazo (교회확장국 국장), Don Dewey (서남 지방회 지방회장), 천진석 (아시아 목회 실행목사), 노동국 (교회확장국 컨설턴트)
- 문의 및 예약: 노동국 목사 847-987-8784, 양영준 목사 (지방회 아시아교회 스텝) 909-702-7561
- 이메일: jroh3@yahoo.com